

연수 자료집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일시 : 2012. 8. 30(목)

상담사례 목차

분 반	성 명	학교명	페이지	
1반 (9명)	1	강영숙	충남여자중학교	3
	2	강정혜	천안월봉고등학교	5
	3	고관희	제주여자고등학교	7
	4	고민숙	과천고등학교	10
	5	고희애	원미고등학교	13
	6	구성완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15
	7	국영주	산분고등학교	17
	8	권인숙	신명고등학교	19
	9	김경임	순창제일고등학교	21
2반 (9명)	1	김미남	동진여자중학교	25
	2	김상모	부영여자고등학교	27
	3	김성령	진건고등학교	30
	4	김성애	사천여자중학교	33
	5	김수영	경수중학교	36
	6	김승자	영상미디어고등학교	38
	7	김승현	숙명여자고등학교	41
	8	김완규	용산고등학교	43
	9	오경숙	광양고등학교	46
3반 (8명)	1	김종우	성수고등학교	-
	2	김지현	문현고등학교	51
	3	김진숙	여수고등학교	54
	4	김철규	서창고등학교	57
	5	김철중	배문고등학교	60
	6	노성빈	구일중학교	64
	7	박미경	충남예술고등학교	66
	8	박순옥	서창중학교	68

분 반	성 명	학교명	페이지	
4반 (9명)	1	김대선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73
	2	김덕경	대림중학교	78
	3	배영준	보성고등학교	-
	4	백성진	이포고등학교	81
	5	서승원	성심여자고등학교	85
	6	손세화	배화여자고등학교	88
	7	심종욱	장위중학교	91
	8	양경숙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93
	9	양공원	한국뷰티고등학교	95
5반 (10명)	1	유인용	옥련여자고등학교	101
	2	은혜정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
	3	이강준	경산여자중학교	103
	4	이경기	인성고등학교	106
	5	이정석	홍성여자고등학교	108
	6	이정원	전남미용고등학교	111
	7	이지상	인창고등학교	113
	8	이행자	매원고등학교	117
	9	장 령	성의여자중학교	-
	10	장정석	계성정보고등학교	120
6반 (8명)	1	조광제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125
	2	조진형	연무중학교	128
	3	최대웅	반포중학교	-
	4	최은주	가좌고등학교	131
	5	현유영	도당고등학교	134
	6	홍순도	서산여자고등학교	139
	7	황의철	향일고등학교	142
	8	문영주	전주술내고등학교	144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1반 사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반 - 사례 1 】

성 명	강 영 숙	소속 학교명	대전 충남여자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개조식의 질문에 대한 응답 방법
- 닉네임이 부르기 곤란한 명칭일 경우
- 개조식의 질문에서 A,B의 둘 중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결정을 상담자에게 요구할 경우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개조식 질문에 대한 응답 역시 개조식이어야 하는지, 서술식이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닉네임의 경우, 부르기가 곤란한 경우는 직업명으로 대신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김
- A,B의 둘 중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결정을 요구했을 때, 어느 선까지 답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예 : 3. 플로리스트 자격증은 고등학교 때 따 놓는 것이 좋은가요?)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플로리스트에 대하여

1. 플로리스트는 문과인가요?아님 이과인가요?참고로 수학기랑 과학을 못합니다.
2. 플로리스트는 유학을 갖다오는것이 좋은가요?
3. 플로리스트 자격증은 고등학교때 따놓는것이 좋은가요?
4. 플로리스트가 적성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5. 이것도 해보고싶고 저것도 해보고싶으면 어떡해야하나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플로리스트를 비롯한 직업정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명확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열거해 주신 미래의 플로리스트님 ! 감사합니다.

플로리스트님이 해 보고 싶은 것이 많다는 사실은 진로에 대한 열정이 적극적인 학생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직업 중에 우선 플로리스트에 호기심이 생기지만, 적성에 맞는 것인지, 문과에 적성이 많은 플로리스트님에게 맞는 직업인지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셨군요. 게다가 자격증과 유학 관련 정보까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선, 플로리스트님이 원하시는 플로리스트는 학력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대학의 학과는 원예학과 쪽이라 이과 문과와는 크게 관련 없이 예술적인 성향, 탐구심이 많은 사람에게 잘 어울린답니다^^

자격증은 시간을 길게 두고서 제대로 익힌 후 취득해 보는 것도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이구요. 유학 역시 플로리스트 공부하는 입문단계에서 고민해 보셔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실지요?

미래학자들은 플로리스트님의 시대에는 직업을 4,5개 가지는 삶이 전개된다고 하니, 이것저것 해 보고 싶으시다는 플로리스트님에게 플로리스트 외에도 적합한 직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더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플로리스트님은 플로리스트가 궁금하셨지만 아직 다른 직업 세계를 더 탐색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혹시 다른 직업에는 아직 관심이 없으시다면, 원예 관련 근처의 직업을 알아가며 유사 직업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구요. 관련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5,10년을 내다본다면 현재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직업을 만들어 그 직업의 선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혹 최근 들어서 적성검사를 실시한 기억이 멀리 있다면 (중학교 적성검사결과만 알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적성검사를 받아서 플로리스트님을 이해하는 보조자료로 사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랍니다.

적성검사 해석에서 막히시거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격증 관련 사이트와 도움 드릴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플로리스트 협회 <http://www.kflorist.or.kr/>

한국꽃예술 작가 협의회 <http://www.floralart.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관련 홈페이지 <http://www.q-net.or.kr/main.jsp>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2 】

성 명	강 정 혜	소속 학교명	천안월봉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의문이 드는 사례
- 내담자가 너무 어리고 내담자 정보가 적어서 답변의 한계가 느껴지는 경우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커리어넷 직업심리검사 안내 외에 안내할 수 있는 자기이해 방법과 내용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아직까지 꿈이 없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꿈이 의사였는데..

지금현재에는 꿈이 없어요 꿈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의사가 별로 하고싶은것도 아니고...

이제 중학생이니까 꿈을 찾아 나서야 될것 같은데.. 장래희망을 뭘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꿈을 찾는 과정이에요.

00님, 안녕하세요.

커리어넷 상담위원입니다.

작년까지는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의사가 되고 싶지 않군요. 그런데 장래 희망을 정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찾아야할 지 궁금하시구요.

00님은 꿈 찾기를 이미 시작한 거예요. "난 장래에 뭘 할까?"라는 궁금함을 갖는 것부터 꿈을 찾아가는 첫걸음이니깐요. 중학교 때는 많은 독서와 직접적인 체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진로를 생각해 보는 시기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알아가는 것을 <진로탐색>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진로를 탐색하려면 헤인 님 자신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잘 하는지(적성), 무엇을 하는 것을 즐기는지(흥미)를 알아야 합니다. 의사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도 자신의 특성을 일부 아는 것이지요. 꿈이 변하는 것에 초조해하지 마세요. 아직은 더 알아가는 단계니까요.

자 그러면 00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커리어넷의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등을 해보면 좋습니다. 커리어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로플러스를 클릭하면 00님이 해야 하는 심리검사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대로 검사를 한 다음 종합결과표를 볼 수 있지요. 그 종합결과표에 나온 자신의 특성들을 잘 읽어보고 관련 직업들 중에서 관심 있는 직업, 잘 모르겠다는 직업이름 등을 하나씩 검색해보면서 다양한 직업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커리어넷->아로플러스-> NO(자기이해를 통한 진로 탐색하기)->종합결과표-> 직업정보알기->꿈 찾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검사뿐만 아니라 **다중지능검사, 성격유형검사**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검사는 학교에 진로상담선생님이 계시면 상담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찾으려면 심리검사뿐만 아니라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 주변 어른들이 00님을 바라본 모습, 친구들이 말해주는 특징 등도 참고하고 내 일상에 다양한 경험을 하며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것, 더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00님이 직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간접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직업과 관련한 자료, 인터뷰 기사, 만화, 책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있고 이 중 나의 흥미를 끌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심이 가는 직업/분야가 생긴다면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00님이 어떤 꿈을 갖더라도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것은 다양한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기본 학습을 잘 하는 것이라는 것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3 】

성 명	고 관 희	소속 학교명	제주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가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뭘자신감을가져라 힘내라 노력해라 이런말이야닌 진짜로 조언을얻고싶어서그립니다.’ 와 같이 상담 방향의 한계를 제한하고 있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이렇게 상담 내용을 제한하면서 직접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내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언 방법이 어려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어떻게해야할까요

저는 중3여학생인데요 너무 머리가복잡해서 상담드립니다 ㅠㅠ

이제고등학교 원서쓰는것도 얼마안남았고 고등학교도 지나면 대학일테고 그뒤 취직도해야되는데 너무걱정인데요 ㅠㅠ 일단저는 성적은 중상위권입니다 300명조금안되는 정원에 100등정도 하구요 반에서도 10등 ? 이정도합니다 어중간하죠?? 너무어중간하다보니 걱정이예요 ㅠㅠ 아주저리 말이많았네요 ㅠㅠ

본문으로 들어가면 음 일단 저는 위에보신대로 공부를잘하지는않습니다

그런데 관심있고 나중에 내가될까생각했을때 하고싶은건

로봇쪽아니면 항공쪽 또는 제과제빵쪽입니다 공통점이없죠 ㅠ?

관심만있고 항상 그렇지 학력이라는게 너무 큰벽인것같네요 ..

포항에 지능로봇연구소 그런데 들어가고싶은데 공부가 자꾸막아버리네요

그리고 과학을하려면 수학은 기본인데 저는 수학진짜못합니다 ㅋㅋ

진짜못해요 다른성적때문에 중상위권이시 수학만 받혀주면 상위권 올라갈거라고 너는 그렇게도 주위에서 말하구요 ,, 수학은정말못합니다 이게 한번못한거면 노력하겠는데 노력해도 안되더라구요 ,, 어떻게해야할까요

뭘자신감을가져라 힘내라 노력해라 이런말이야닌 진짜로 조언을얻고싶어서그립니다 전이제어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세요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님이 쓴 글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부분이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너는 다른 학생들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담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님이 글을 보면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너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보다는 실질적인 진로를 이야기하고 준비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너의 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너 하고 싶은 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봇 쪽이나 항공 분야, 그렇지 않으면 제과제빵 분야이겠지요.

둘째는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고, 이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너의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가장 외적으로 나오는 문제로 학업(수학)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특히 로봇이나 항공분야에는 수학이라는 분야가 절대적인데 이 분야에 약하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너 글 보면서 너무나 자신감 없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너무 구속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지요. 너의 진로가 포함에 있는 지능로봇연구소라고 하면 한국로봇융합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원은 철강, 의료 수중, 문화 등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첨단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로 진출하기를 원한다면 행정 분야가 아니면 수학과 과학을 기본으로 공부해야 하고, 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학에는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선은 수학 실력을 뛰어나게 만들기 보다는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에 집착하지 말고 단

지 수학과 접하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수학 실력이 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학을 하면서 지금단계보다는 좀 더 낮은 기초부터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님이 알수 있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면 문제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고 수학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과제빵 분야도 괜찮겠지만 진짜 이 분야가 내 적성에 적합한 진로인지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 들어가서 적성 검사를 받아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담임선생님 혹은 학교의 진로상담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님은 자신이 못 한다’ 고만 생각하는 것일까요? 님의 글을 읽으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너무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자신에게는 결코 위안이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님의 미래는 님 스스로가 능력을 키워서 님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중 3 여학생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좀 더 살아가면서 자신의 장점을 계속 키워나가고 단점을 조금씩 보완해 간다면 분명히 님의 꿈에 조금씩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려하다보니 내용이 너무 아쉬웠나요?

꿈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꿈에 다가서서 결국은 꿈을 이루는 멋진 여학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1반 - 사례 4 】

성 명	고 민 숙	소속 학교명	과천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새롭게 진로를 탐색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는 진로탐색방법에 대해 제공해 줄 정보가 많았던 것에 비하여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음
- 상담을 해 준 후에도 내담자에게 만족스러운 상담이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대학입학 후 선택학과에 대해 흥미와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아이들에게(특히, 대학교 저학년이 아닌 고학년들에게) 과연 어떤 조언을 해 주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모르겠습니다ㅠㅠ

저는 4년제 지방대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전공은 식품영양학입니다. 저희 과의 진로는 대부분 영양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이 제적성이 맞지않은거 같습니다. 저는 돈은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치만 학과성적도 그리 좋지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학과 수업도 마음에 들지않고 적성에 맞지않으니 듣기싫고 공부도 하기가 싫습니다. 이제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방송쪽에 약간 흥미가 있는것 같은데 이제와서 너무 늦은거 같고, 또 그냥 단순히 잠깐의 관심인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졸업한 대학선배들을 멘토로 만나 보시길...

꽃이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전공에 대해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공부도 자연스럽게 하기 싫어지면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보다 원초적인 고민에 휩싸이게 된 것 같네요. 이제 대학생인데 열심히 공부만 하면서도 시간이 모자랄텐데 이런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되니 맘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꿀이님의 고민을 읽어보고 저도 한동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 상담에 뭔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고민과 선택에 대해 무슨 말을 해 줘야 할까 하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ㅠ.ㅠ

대학교 3학년이면 이제 바야흐로 전공에 본격적으로 몰입할 때인데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말이 위안이 될까?라고 잠깐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을 용기가 있으니 딛고 일어설 패기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고 용기내어 얘기해 볼게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알지 못하겠지만 혹시 문과학생인데 교차지원으로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갔나요? 식품영양학과와 컴퓨터교육학과 등은 문과학생들이 교차지원을 통해서 이과로 가는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혹시 꿀이님이 교차지원을 통해서 지금의 전공을 선택한 거라면 수학, 과학 관련 성적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공성적이 다른 학생에 비해 좀 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구요. 성적이 낮게 나오니까 더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래 이과학생이었다면 충분히 식품영양학과에서 배우는 전공이나 전망, 진로 등에 대해 생각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이과 중에서도 비교적 합격점수 컷이 높은 인기학과에 속하고 졸업 후 영양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진로도 확실하구요. 요즘은 임용고사에서도 영양교사로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국어교사, 영어교사처럼 '영양교사'로 위상이 높아졌고 대우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직위도 안정적이구요. 물론 선발과정의 경쟁률은 높겠지만 우리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도 취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비교적 남들이 다들 가고 싶어 하는, 좋은 학과에 입학하고서도 회의를 느끼는 걸 보면 입학 전에 식품영양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및 탐색이 다소 부족했었던 것 같네요. 그러나 지금 식품영양학과가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선뜻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진로를 처음부터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아까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꿀이님에게 딱히 '이걸 진짜로 해 보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방송에 약간 흥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곤 하지만 예기의 정도로 보아선 그 정도 나이의 젊은이들은 누구나 잠깐씩 갖게 되는 방송·연예 관련 쪽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 같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분야로 따지자면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 많은 분야에 대해 가졌던 관심의 정도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계열이나 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고민을 하지만 선택한 이후에도 자신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성적이 좋지 않는 경우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기란 힘들기 때문에 누구든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를 위한 명확한 해결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계열이나 전공을 바꾸는 것에 대해 고려하기 전에 현재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힘들다 판단된다면 계열이나 전공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겠지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꼴이님이 다니고 있는 대학 출신의 학과 선배(학과 사무실에 문의해보면 선배를 소개받을 수 있을 거예요)로서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들을 만나 보는 것이에요. 실제로 대학의 전공과 실제 직업중사 분야의 일치도는 50%를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선배님들을 만나 얘기를 하다보면 꼴이님의 선배들 중에도 같은 고민을 하던 선배들이 많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 고민들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하고 지금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담들을 듣다보면 분명 그 선배들 중에는 꼴이님처럼 성적도 안 나오고 적성도 맞지 않는 것 같았던 순간들을 잘 극복한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학교의 선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공유하고 있는 대학 선배와의 만남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선배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식품영양학이라는 학과의 성격과 공부에 대해 미리 꼴이님의 앞날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 받을 담뿍으니 그냥 적성이 안 맞는 것 같고 공부하기 싫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과에 대한 탐색을 해 본 후에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런 탐색을 해 본 후에 다른 학문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생기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을 부전공해서 외식관련 창업을 할 수도 있겠구요. 지금은 학문의 융합시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의 학문으로만 뭔가를 이루려는 것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학문을 융합해서 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일들을 이루어가는 시대니까요.

꼴이님,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세요. 지금 이 순간 꼴이님이 갖고 있는 고민은 그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고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구요. 더 질문할 게 있으면 또 찾아 주세요.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5 】

성 명	고 희 애	소속 학교명	원미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자기이해가 부족한 학생의 효율적인 온라인 상담 방법을 알고 싶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자기이해가 안된 학생들에게 직업흥미, 적성검사 이외에 어떤 검사를 추천해 주는 것이 좋은가?
- 효율적인 내담자의 장점 발견하도록 하는 상담방법?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목표를정하고공부하고싶어요

제가원하는꿈이무엇인지모르겠습니다.하고싶은직업쪽으로열심히공부하고싶는데제가무엇을하고 싶은지모르겠고 딱히잘하는것이없어서어느쪽으로가야할지모르겠어요어떡해하죠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꿈을 찾아서...

00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직까지 00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막막하게 느껴졌나 보군요. 그럴 때는 누구나 답답한 마음이 생길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에 대하여 탐색하다 보면 00님에게 맞는 진로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진로선택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해도, 00님이 하고 싶은 직업을 알기 위해 지금 고민하는 과정이 꿈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더 잘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느낄 수 있으며, 삶의 보람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흥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0님이 평소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면 **직업흥미검사**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구요.



00님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직업흥미검사 결과에서 추천된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을 권해 드리고 싶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00님에게 추천된 직업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을 알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직업이 성격하고도 맞는지 등을 하나하나 따져가다 보면 분명 00님이 한번 해보고 싶은 직업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그 꿈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일을 좋아 한다고 해서 일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성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소 잘 한다고 칭찬받은 일이나 남보다 잘하는 과목이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00님은 겸손하게 잘하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요, 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00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직업적성검사**도 해보길 권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아로플러스**에서 **자기이해를 통한 진로탐색하기** 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00님이 어떤 직업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지, 직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등 00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검사결과는 진로탐색을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00님의 꿈은 확실해져 갈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에게 딱 맞는 진로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에 대하여 좀더 많이 알기 위해 검사도 해보시고, 검사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항목은 어떤것인지도 한번 살펴 보시구요. 검사결과에서 제시된 직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찾아보시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00님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가장 잘 대표하는 특성, 사람들이 다들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찾아보도록 해요. 00님! 조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꿈에 성큼 다가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도 00님을 응원할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나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6 】

성 명	구 성 완	소속 학교명	충남교육연구정보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상담 요청 글을 읽고 난 후 상담하기 싫었음
- 대면 상담의 경우라면 질문의 핵심을 정리해가며 상담을 진행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함이 아쉬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질문의 핵심이 없고 여러 가지를 묻고 있을 때 어디에 중심을 두고 답을 해야 하는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대학교 진학/장래희망

제 꿈이 의사인데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 성적은 1학년때 반에서 5등안에서 드는데 의사가 되려면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sky 대학교를 가려면 저희 학교(190명) 에서 몇등 정도 되어 하나요?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는 등록금이 비싼데 거기서 공부하는것이 좋은 건가요? 그리고 이런 sky 대학아니여도

제가 대전광역시에 사는데 여기에 카이스트대, 충남대 이런 대학교들이 있어요. 대전에서는 그래도 충남대학교는 잘 알아주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면 그냥 지방대학교 취급을 당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피아노도 6년동안 배워서 선생님도 제가 소질이 있다고 하시고, 대회나가서 예술고등학교 아카데미에 들어오라고 한 적도 있는데, 제가 지금 피아노 실용음악을 전공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또 경쟁은 어느정도이며, 나중에 커서 버는 수입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대학교 진학/장래희망

안녕하세요. ㅇㅋ님! 커리어넷입니다.



대학진학 및 나의 진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으시군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 라구요.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국가에서 실시하는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면 의사를 할 수 있습니다. ○ㄱ님이 대학에 진학 할 때인 3~4년 후에는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이 약 3,7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의사를 하겠다고 준비 중인 사람들이 많아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중학교 때 몇 등 안에 들어야만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 중학생이니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불가능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 입학하려면 중학교 때 최소 몇 등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때 잘 했던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학교 때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 고등학교에 올라 와서 잘 하는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대학을 좋은 대학 또는 안 좋은 대학, 수도권대학 또는 지방대학으로 구분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학별로 다른 대학과는 차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어 비록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상위권 학생들도 진학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ㄱ님께서 소질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아노실용음악에 대해 알아 볼 께요. 실용음악이란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을 떠나 일반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음악을 뜻합니다. 실용음악 내에서도 노래를 하는 보컬 전공도 있고 각종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작곡이나 편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진로는 재즈 및 락밴드 활동, 팝 오케스트라 단원, 방송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가수들의 세션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은 개인의 역량(능력)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혼자서 공부하느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개인교습을 받거나 학원에 가서 배우게 될 때 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습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ㄱ님!

현재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것을 내가 과연 해 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으시죠?

생각이 많아지면 공부도 잘 안되고 또 다른 것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ㄱ님은 아직 중학생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 필요한 공부를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하다보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7 】

성 명	국 영 주	소속 학교명	산본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대학생의 진로상담에 부담을 느꼈음. 23살의 대학생이면 4학년 졸업반이고 교수님이나 선배 등을 통해 정보나 진로에 대한 더 깊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과, 대학생 진로 상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답변에 자신이 없었고, 답변작성은 다른 어떤 사례보다 열심히는 하였지만 내 스스로 답변에 대한 자신이 정말 없었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대학생 또는 성인상담에 대한 슈퍼비전이 별도로 이루어졌으면 함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제가 지금부터..

저는 23살 체대에다니는 대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싶은 것은 있는데 어떻게 그분야에대해 공부해야될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몰라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꿈은 없지만 제가 알고있는 스포츠 지식들을 알려주는게 좋아서 스포츠재활이나 운동처방사를해서 실버타운이나 재활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헌데 막상 하려고 하니 어떤것 부터시작해야되고 무엇을공부해야되는지 잘 몰라서 지금은 생각만 하는 중입니다. 이 분야에대해서 무엇을해야하는지 알기만하면 그 쪽으로 바로 공부하고싶은 마음은 굴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나가기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하며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운동처방사!!

안녕하세요.

커리어넷 상담교사입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약물투여와 수술 중심이었던 방식에서 다양한 형태의 치료로 전환되고 있어, 운동처방사는 100세 시대에 꼭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진로탐색으로 적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더 나아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직업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처방사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려고 대한운동사 협회분과 전화를 하였습니다.

- 1) 생활체육지도사 1급은 국가공인자격증이지만
- 2) 운동처방사는 지금까지는 협회에서 주는 민간 자격증이며
- 3) 사단법인 협회에서 시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
- 4) 향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함(대한운동사 협회 인용)
- 5) 운동처방사가 되려면 학사학위 소지
- 6) 스포츠의학과 또는 스포츠건강학부에서 심화전공을 하면 유리함.
- 7)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의 깊이와 정확도”
- 8) 제반적인 운동생리학 지식, 트레이닝방법론, 생체역학, 운동실시법, 기초해부학지식 등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음.
- 9) 한국운동지도협회 <http://www.keipa.or.kr/>와
대한운동사협회 <http://www.kacep.or.kr/> 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주로 인정받음.
- 10) 운동처방사는 21세기 유망직종에도 선정된만큼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비전이 있는 직업이며,
능력에 따라서 보수와 대우도 좋다고 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위해 여러사이트도 방문하고 전화를 통해서 알아본바로는 운동처방사는 장수시대에 꼭 맞는 유망직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꼭 꿈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8 】

성 명	권 인 숙	소속 학교명	신명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동일한 내담자가 5회기에 걸쳐 연속 상담
- 진로정보탐색에 있어 상담자 의존형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의 잦은 진로변경 시 대처 상담기법
- 지난 상담 내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교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국어국문학과에 진학을 해서 국어선생님의 꿈을 키워나가도 될 거예요. 아니면 국어 관련 전공을 한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고요"

라고 저번 답변에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육이수를 어떻게 해야 하며 교육대학원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지 중학교 국어교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어국문학과를 지방에서 나와도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학교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지방 OO대학교는 몇 등급이 나와야되는지 등등을 정확히 알고 싶네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국어교사가 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 00님 ^^

시원한 한줄기 소낙비가 메마른 대지와 들판의 곡식들에게 푸르름과 생기를 더해주듯이

지난 상담에서 00님의 궁금함이 좀 가시게 되었는지요? 좀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올려주는 00님의 열심과 성의에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상담내용을 인용하여 다시 질문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야무진 예비교사의 모습을 보는 듯 명확하게 요소요소를 짚어가며 설명하는 모습을 미리 떠올려보니 미소가 떠오르네요.



00대학 국어국문학과는 교직과정은 일반적으로 학과 별 정원의 10%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그 선발은 학교와 학과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어 정상적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구요, 교사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 또한 갖춰지게 되죠. 교사임용시험을 통해 공사립 중고등학교에 정식 발령을 받아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교직과정 이수자는 대학교 1학년이 끝날 때 신청을 받고 선발을 합니다. 학교 마다 교직이수자 선발 기준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학년 때 성적이 평가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직이수를 선택하여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대학 입학 후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도 교직이수과정이 가능한 학교가 많아요.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교들의 국어국문학과는 평균 2~3등급정도는 나와야 하구요. 그 외에도 여러 대학교들이 많이 있답니다. 대학마다 특성도 다르고 성적 커트라인도 다 다르지요. 연한님이 어떤 지역의 어느 대학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대학의 정보를 제시할 수는 없어요. 어느 대학이 괜찮을지 생각해보고 관심이 생긴 대학교가 있다면 그 대학 홈페이지에서 입학성적, 학과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각 대학 홈페이지에 입학안내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각 년도별 입학결과를 올려놓았어요. 그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00대학교에서 교직이수를 하지 못했다면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다만 대학교 때 전공과 동일한 전공일 경우에만 자격증이 나온다고 하네요. 국어선생님이 되고 싶으니 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와 같은 국어 관련 전공을 한 뒤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되겠지요. 교육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 5학기를 이수하며 , 야간에 수업을 하거나 방학 때 몇 주간 수업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대학원들과 같이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격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전공교수님들과의 면접도 있어요. 입학과정을 통과한 후 교육대학원의 학생이 되었다면 다른 건 다 비슷해요. 수업 듣고, 과제 하고.. 이러한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나면 관련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서 말했듯이 교사임용시험을 통과해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00님의 모습에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며, 혼자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얻어낸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주변의 선생님, 부모님의 조언을 참고하여 00님에게 어느 방법이 맞는지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0님의 확고한 목표와 의지를 믿으며, 멋진 국어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길 바랄게요.

커리어넷 드림

【 1반 - 사례 9 】

성 명	김 경 임	소속 학교명	순창제일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진로 미성숙 상태의 답변이 매우 어려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진로에 대해 미성숙한 학생에게 가장 최적의 상담순서 및 기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복잡하고고민되요

이제막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자기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해야한다고하잔아요!!그런데..제가좋아하고 잘하는건 글쓰는거나 사람들이랑 말하는거 대인관계? 창의력? 이런쪽으로 결과가 좋게나오는 편이에요!

하지만...성적이 좋지안아!!고민입니다..성적은 올릴수있는거고

열심히하면 되는거지만...제가 뭘해야하는건지 어떤학과 어떤학교를 가고싶은지 일단 정하고 싶은데 잘되지않아요..ㅠㅠ인터넷에 도움을 받아봐도 답답한건 여전합니다..ㅠㅠ아직제가 확실히 뭘하고싶은건지 잘모르겠어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차근차근 미래를 향해 준비하세요

님!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중학교와 달리 계열선택을 해야하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해야 하니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물론 성적이 잘 나오면 쉽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 만도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 알아야 하고 대학진학을 위해 부족한 학습계획도 세워야 하며 가고 싶은 대학의 입시전형에 대해 알아봐야 하니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님은 창의력과 대인관계, 글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친구가 많을 것 같네요. 기발한 아이디어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표현력이 좋다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님이 하고 싶은 일이나 멋진 롤 모델을 찾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이나 대학이나 교육기부 기관의 학과 체험 등을 이용하여님이 무엇을 할때 흥미진진하고 뿌듯한 느낌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국체험 중 시나리오 작성이나 뉴스진행)등의 진로체험이나 각 대학들이나 교육기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승무원체험이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학과체험들 중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직업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터넷 사이트 중 대학 알리미 사이트를 검색하셔서님이 거주하는 근거리나 원하는 대학의 학과들의 특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직업과 관련한 학과는 커리어넷 사이트에서 학과정보를 클릭한 후 검색을 하면 개설대학과 관련 직업 및 요구되는 능력도 알 수 있어요.

남들보다 먼저 고민하는님이 원하는 학과나 대학을 설정하여 노력을 한다면 남보다 더 만족스런 대학생활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학과가 정해진 후 궁금한 사항은 방문하여 질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님의 화이팅을 기대하며

커리어넷 드림.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2반 사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반 - 사례 1 】

성 명	김 미 남	소속 학교명	동진여자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모니터링 위원으로부터 수정 요청받은 것과 자신의 견해 간에 이견이 있었던 사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나를 많이 찾아보고 성심껏 답변을 했다고 보는 데 두 번의 모니터링이 오니 자원봉사의 의미에서 실시하는 이 일로 인해 스트레스적인 요소가 있어 힘듭니다.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짜하고싶은걸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정말오래전부터 만화가나 화가를하고싶다고 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잘되면 정말 좋은 직업이지만 잘 될 가능성이 많이 없고 경쟁하는 것도 너무 쎈것같아요 물론 체생각이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보단 아니지만 좀 흥미있고 적성에 맞는 직업으로 진로를 정했어요

그런데 진로라는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잘못선택했다가 나중에 다시 길을 걷고 그런 시간낭비는 하고싶지않아요 진짜하고싶은걸해야할까요...? 아니면 나름 괜찮은 진로로 가야할까요

미치게겠어요 ㅡ으ㅇ형 | ;" | "ㅇㅎ르ㄴㅇ르ㄴㅇ르ㄴㅇ르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반갑습니다. 꾸르르릉님!!!

커리어넷입니다.



꾸르르륵님은 어린 시절부터 만화가나 화가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가능성과 경쟁 부분이 염려되어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고 진로를 정했지만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불안감,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진짜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지????? 괜찮아 보이는 것을 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군요.

적성에 맞고 흥미에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성취감이 떨어지거나 경제적으로 보상이 낮거나 기회가 많지 않아 힘든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 중에 만화가나 화가가 포함됩니다. 화가나 만화가로 성공하여 부와 명예를 얻는 건 소수에게 해당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직업은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하기보다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취업에 대한 부분도 달라요. 그것을 알고도 만화가나 화가로서의 목표가 분명하여 만화가나 화가의 꿈에 대한 미련이 있다면 자질에 대한 정보를 드려 볼게요. 우선 만화가나 화가의 조건은 둘 다 미술에 대한 자질이 많고 그림에 소질이 있어야 하며, 그림과 만화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하겠지요? 또한 신체건강하고 정신력이 투철해야 하고, 철저한 예술관과 기술능력을 지녀야 할 것 같아요.

직업 흥미로는 예술 분야의 점수가 높으면 좋구요. 적성검사 결과에서 공간시각능력, 손재능, 창의력 등의 점수가 높다면 더 할 나위 없겠죠?

지금 정한 진로가 무엇인지 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면 행복하게 그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직업을 통해 꾸르르륵님이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관 검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업 활동을 통해 보수와 안정성을 원하는 지? 능력 발휘나 사회적 인정을? 자율성이나 발전성을 원하는 지? 흥미와 적성, 가치관이 서로 비슷한 것끼리 연결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해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꾸르르륵님! 파이팅!!!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방문해 주세요.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2 】

성 명	김 상 모	소속 학교명	부영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가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모호하게 함.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하는가?
- 내담자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꼭 봐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게 너무 많은게 고민입니다.

어릴때부터는 음악관련직종을 하고싶었는데 솔직히 음악이란게 그리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닐수도있지만 저는 돈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고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게 되었는데 조리사등등 어느 하나를 명확하게 정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미래를 정하는것을 선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명확하게 단 하나가 결정이 되지않습니다, 적성검사든지 여러가지 해보았지만 모두 제가 원하는 직업군들은 들어있었던것 같아서 무엇을 하나를 결정할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진로 고민...

안녕하세요, 끼링끼링님! 커리어넷입니다.



대학입시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진로에 관한 고민이 많군요. 보통의 학생들과는 달리 끼렁끼렁님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며, 정작 하고 싶은 것을 정하였다가도 시간이 가면서 흔들리는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며, 그 동안 다양한 검사도 하고 직업에 대해 조사도 했지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다니 걱정이 되네요. 다른 학생들은 입시준비에만 매달려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끼렁끼렁님은 진로문제로 인한 오랜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니 참으로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야를 정하면 열심히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해 답답할 것 같고요. 한 가지를 정해보고자 다양한 검사도 하고 직업에 대해 조사도 했지만 명확하게 결정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동안 적성검사 혹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아서 결과를 받았지만 그것은 검사결과일 뿐 끼렁끼렁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기 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검색이나 체험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음악 관련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돈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회의가 생겼군요. 끼렁끼렁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직업 선택의 절대적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따라서 하는 일이 재미있고, 가지고 있는 능력과도 일치하며 앞으로의 전망도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거나,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며, 심지어는 돈이나 명예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느 한 기준만을 가지고 직업을 결정하기 보다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직업을 택할 수는 없겠지요. 성과도 안 좋을 거고요. 그러니 하고 싶은 것 말고도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평생직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지만 지금의 시대는 적어도 4번 정도는 직업이나 직장을 바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평생직장이나 평생직업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마음속에 두고 있거나 호감이 가는 직업이라면 먼저 커리어넷의 직업사전을 활용해서 충분히 탐색하고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각 홈페이지나 인터넷 뉴스 및 블로그 등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등에 가입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도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면 왜 안 어울리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고3의 시기이지만 인생의 전체 과정을 생각한다면,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해하고 방향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최선의 방향을 선택해 나가면 끼링끼링님에게 맞는 방향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일찍 자신의 방향을 좀 더 세밀하게 결정할 기회가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늦게 구체화되며, 좀 늦었다고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방향을 선택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3이니까 관심있는 직업들과 관련된 학과들을 몇 개 선택해서 나온 진로의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택해보고 점차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좁혀 나가보아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이 끼링끼링님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고민하고 찾아보고 다시 의논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3 】

성 명	김 성 령	소속 학교명	진건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상담답변 시 다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주제 파악이 힘들다.
- 어떤 답변을 해도 만족을 주지 못할 것 같은 상담의뢰 내용이다.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진로문제와 심리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상담을 풀어나가는 문제
- 상담 내용이 너무 막연할 때 상담하는 방법?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우울증 걸리겠어요.

안녕하세요 전문대학 3학년 졸업 예정인 학생 이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너무나 다니고 싶어서 어찌다

보니 제가 하기 싫은 과를 가게되었습니다.

과는 유아보육과입니다.자격증은 유치원정교사2급와 보육교사2급와 건강가정사와 사회복지사 2급을 줍니다.이 과에 온 동기는 자격증을 보면 취업하기 좋고, 제가 아이를 무척 좋아하고 아이랑 놀면 나의 마음이 불안했던게 없어져서 좋아했지만 그래도 전 이과에 와서 정말 후회엄청합니다.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는 것과 손재주 노래,피아노,발음까지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과를 가서는 가족과 친구때문에 적성에 안맞아도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보건계열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계열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쪽에서 보면 이제 졸업반이고,졸업하면 적성에 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졸업하고 대학교를 또 입학하기에는 저의 집 사정이 안좋습니다. 그냥 저는 졸업하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이닉스에서 사무직으로, 솔직히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있음 현장에 가서 실습도 나갑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일 매일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우울증도 심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쪽으로 취업하고 싶지만 2급 가지고는 취업을 못합니다. 전 정말 보건계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의 집 사정을 보면 바로 취업을 해야하고 하.....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현재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송이님. 커리어넷입니다.

어제는 한 사람씩 돌아가며 오늘 하루 중 감사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연수가 있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가에 특별히 할 말도 없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감사를 느끼고 있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저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감사할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29살에 결혼했는데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고 뇌를 크게 다쳐 생각하는 지능이 9살 정도인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왼쪽 전부는 마비가 되어 걷는 것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어 모든 경제생활을 여자인 본인이 책임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철퇴로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결혼 한지 23년이 되었고 어렵게 얻은 아들은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말썹쟁이라고 하면서 미소 지은 입과는 다르게 눈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송이님의 상담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앞에 있으면 손이라도 꼭 잡아주면서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고해와 같은 괴로움의 바다를 헤쳐 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한 꺼풀 벗고 내면을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슬픈 내용이 많은지... 어젯밤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하면 이런 힘든 일들이 있기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불행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행복의 참맛을 알기 힘들니까요.

송이님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은 학생으로 보입니다. 인내심도 강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건계열에 관심이 많지만 지금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아보육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은 하이닉스 사무직으로 취업을 앞두고 막막한 마음에 우울증에 빠져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되고 싶지만 2급이라 힘들다고 생각하고, 다시 보건계열로 진학하고 싶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하여 어렵게 취업을 결정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송이님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버리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서 죽도록 하고 싶은 소중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사랑하지 말고 존재만으로 사랑하라.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며 미소를 잃지 않은 강사님이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온 격언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모든 기대감을 버리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9살 지능밖에 안되고 모든 일을 거들어줘야 하는 남편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남편이라는 사람의 기대감을 내려놓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감사함으로 남편을 보니까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힘들겠지만 송이님도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기대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 때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하이닉스 사무직에서 최선을 다해 보면 어떨까요.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면 송이님이 생각지도 못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예를 들어 을지대학교 같이 야간계열이 있는 보건이나 간호 쪽으로 진학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사회 경험을 쌓은 송이님은 간호사로 근무해도 남과 다른 행복을 느끼며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시라고 파이팅을 외쳐드립니다. 파이팅!!!!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4 】

성 명	김 성 애	소속 학교명	사천여자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답변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내담자 유형 및 상담내용
- 내담자가 원하는 답변 내용(양)이 많아 부담을 느꼈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꿈을 가지고 싶은 내담자의 희망이 간절하여 정말 도움이 되는 답변을 주고 싶었던 사례였지만, 내담자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모두 고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가지 주된 내담자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꿈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었으나, supervisor님께서 내담자가 말한 모든 특성에 대해 언급, 그 방법을 제시하라는 monitoring 의견을 주셔서 처음 내용에 첨가하고, 수정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빠짐 없이 추천하다보니, 중학생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양으로 늘어나 버렸고, 처음 기획했던 방향과도 좀 달라진 듯한 느낌도 받아 함께 논의하고 싶은 사례로, 앞으로의 상담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꿈이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여자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이유는 저도 꿈을 가지고 싶어서 입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벌써 꿈을 가지고 있어 장래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저는 꿈이 없어 그런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성적은 80에서 90사이를 맴돌고요, 70대로 내려간 적은 한번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건 좋아하지만 영어는 문법에서 막혀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 수학 체육 과학 인데 이 과목들은 85에서 95 사이로 성적이 나옵니다.

수행평가는 나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잘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흥미 있는 건 무언가를 단기간에 만드는 것이나, 요리 체육하는 걸 좋아합니다.

성격은 친구들과 사이에서 밝고, 약간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친구사귀는 거 좋아하고, 친구 챙겨주는 거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을 좋아하고 잘 따르지만 최근 있었던 일로 싫어하게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상장을 글짓기로 11개 정도인가 받아왔구요, 상점은 12학년 거 다 합치면 20점 정도 되고 별점은 2점 입니다

저한테 맞는 진로 추천이나 제가 흥미 가질만한 것좀 상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지금 진로 말고도 고등학교 이과 문과를 선택하는 것도 고민인데 저는 국어 사회를 좋아합니다.

근데 수학 과학이 문과보단 점수가 더 잘나와요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꿈을 갖기 위해

유님~ 안녕하세요?

유님은 자신의 꿈을 찾고 싶어하고, 또 고등학교 진학 후 선택하게 되는 이과와 문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군요. 유님의 글을 읽으면서 앞날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에 대하여 탐색하려는 그 자세가 선생님은 매우 대견하다고 느껴 집니다.

먼저 자신의 꿈을 찾는 과정은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파악해보는 방법으로 유님의 성격, 흥미, 능력, 가치관, 환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재미있어 하는지 등을 탐색하는 활동을 거치는 것입니다.

유님의 글을 보면 유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과 성격, 좋아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 수학, 과학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성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유님은 85-95점을 받는 것을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또 유님은 대인관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유님은 이미 잘 갖추고 있는 것 같군요.^^

유님이 가지고 있는 신체운동능력, 대인관계능력에 관련한 직업군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도 유님이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커리어넷 직업사전](#)으로 들어가서 상단 네 가지 분류 중 적성유형별에 클릭하여 들어가면 10가지 능력이 제시되는데, 첫 번째 신체능력을 클릭하면 관련 직업이 나오고요, 아홉 번째 대인관계를 클릭하면 또한 대인관계 관련 직업이 제시됩니다. 둘 간 공통으로 소개된 직업을 탐색해 본다면 유님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스스로의 탐색과정을 이미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유님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자기탐색을 위해 친구들과 가족들이 보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검사를 이용하여 어떤 분야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자신에 대하여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현재 유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노력하면 더 계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자료라고 볼 수 있지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보는 방법인데요, 유님이 [커리어넷](#)이나 유스워크넷 등에서 심리검사를 받게 되면 흥미, 적성, 성격 등 각각이 반영된 결과에 따라 추천하는 직업군들이 제시되어 나옵니다. 그 중 관심 직업을 정한 후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떤 능력과 자격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직업정보를 찾았다면 유님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문/이과 계열 선택은 어떤 계열의 성적이 좋은지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의 계열은 대학의 학과 선택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대학의 학과는 앞으로의 진로,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계열을 선택할 때는 목표로 하는 분야 내지는 직업과 연결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아예 성적을 무시하고 계열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성적만 가지고 계열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그 계열 내에서 관심 있는 직업이나 학과를 찾을 수 없어 고민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님이 조금 전에 말한 방법대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큰 그림을 그린 후 그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대학의 학과는 무엇인지, 그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열에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될지를 고려하는 순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먼저 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열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님의 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주세요. 파이팅!!!!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5 】

성 명	김 수 영	소속 학교명	경수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가 겉으로는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했지만 목표로 하는 직업이 있으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진로탐색의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상담자는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해야 하는지?
-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얘기 하지 않으면 진로 탐색의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는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며
 그저 돈 많이 벌고 몸 편한 직업을 갖고 싶은 중3입니다.
 최종 목표는 기업 고위간부이고 지금 회계사, IT 컨설턴트 같은
 직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회계사 같은 직업은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기업 고위간부를 향한 시발점을 어떤 직업으로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합니다.
 고민이예요 ○~~~~~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진로 탐색을 더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님 안녕하세요?

○○님 스스로 나는 무엇을 잘할까, 무엇을 하고 싶어 하나?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출발점에서 한 발을 내딛은 거네요. 그러니 좀 더 나가서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일이나 남보다 잘하는 일,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남다르다고 했던 일들이나 장점들을 생각해보고 종이에 한 번 써보세요.

그리고 공통적인 점을 정리해보면 내가 잘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커리어넷에서 직업흥미검사나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등을 해보고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관련 직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회계사와 IT 컨설턴트 같은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고위 간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왜 그런 직업에 끌리는지도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보수와 그 직업이 놓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인지,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싶어서인지, 논리적 능력이 강점이라 그것을 발휘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헤린님이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고, 중학교 시기는 바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직업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IT 컨설턴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 직업은 IT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까지도 폭넓게 알아야만 하고 의사소통 능력 뿐 아니라 리더십도 길러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고위 간부가 되기 위한 자질을 미리 준비하고 배우기에는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되요. 그리고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분석적인 능력과 책임감도 계발해야 하는데 IT 컨설턴트도 이런 역량을 계발해야 하니 분명히 연관성은 크겠네요.

용기 있게 커리어넷 문을 두드리고 진로탐색의 첫걸음을 내딛은 ○○님을 위해 박수를 보냅니다.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6 】

성 명	김 승 자	소속 학교명	영상미디어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상담자 본인 보다도 부모와의 관계 상담인 경우의 답변의 모호함
- 지역별 학교 정보와 내신 성적의 적용여부에 대한 자료 부족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고입 내신 관련 자료 탐색 방법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학

저희부모님이 특성화고나 전문계고는 나중에 실업자 된다고 계속 안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특성화고로 진학을 하고 싶어요

내신은 45%?정도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특성화고 진학의 장단점 탐색하기

안녕하세요. **님! 커리어넷입니다.

여러가지 성장시기에서 오는 고민들도 많은데, 고입 진로문제로 부모님가 의견차이가 있으니 마음이 복잡하겠네요. 성적과 더불어 진로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막연하게 특성화고를 가고 싶어하는 경우는 대화하기가 더욱 힘들실거예요.

그런 경우 본인의 의견과 부모님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탐색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면 생각보다 멋진 고교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 흥미와 적성 정보 >

우선 **님이 특성화고를 가시고자 하는 이유를 정리해보세요.

왜냐하면 인문계열 고등학교와 달리 특성화고를 진학하는 경우 1학년 시기부터 취업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취업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학과선택이 달라지고, 바로 직장 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동작구에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과가 16개나 있는데, 학과별로 배우는 내용도 다르고 취업 분야가 다르므로 취업률도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취업문제가 걱정이라면 잘 알아보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즉 취업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스타일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하루종일 반복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울 것인지, 그 일을 5년 동안 해서 숙련되었을 때 나는 어떤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10년 후에는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 지금 고민하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취업의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빨리 결정내려야 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고민하겠지만, 지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 좀더 찾아본 다음에 진로를 결정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요?

< 학교정보는 >

<http://www.sen.go.kr>(서울시교육청)->교육정보->서울교육통계->연도별학교현황을 보시면 엑셀파일로 서울시의 모든 고등학교가 소재지와 함께 안내되어있습니다. 또는 교육청 안내->학교안내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에 진학/취업 코너가 있어서 전체 취업통계 자료나, 취업의뢰처를 게시하니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학교가 정해지면 그 학교의 취업담당교사가 전화상담 하시면 최신 취업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식과 달리 작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 좋은 조건의 취업처가 많아지고, 취업의뢰도 많아지고 있어서 학교별로 특성이 다양하고 대학을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취업전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학을 진학하기 좋은 '재직자 전형'의 대입선발조건도 있어서 고등학교별로 입학 을 위한 내신성적 커트라인이 다르고 작년대비 올해 입시커트라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꼭 학교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된 부분에 대해 부모님과 함께 좀더 알아보시면 좋은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고교 3년 시절을 잘 보내어 멋진 직장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님의 진로에 대한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멋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진로상담코너를 찾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7 】

성 명	김 승 현	소속 학교명	숙명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중학교 사회선생님, 청소년 상담사 진로고민과 같은 지역과 다른 지역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이 있던 내담자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상담해 달라고 한 이후의 상담 요청.
- 내담자 전라남도 중학교, 상담자 서울시 고등학교.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고등학교 진학이요

안녕하세요 또 상담을 신청하는데요

제가 영암여고에 가고싶어서요

영암여고에는 어느정도 까지 갈수 있을까요?

저는 250명중에서 거의 15~20%안에는 들거든요

제가 영암여고에 갈수 있을까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다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a

이아헌님 다시 찾아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커리어넷입니다.

영암여고에 가고 싶으시군요? 전라남도에 있는.....

그런데 어찌죠???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요.....ㅠ.ㅠ

하나는 제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라서 전라남도 중학교 입시 정보를 잘 몰라요^^;;

다른 하나는 커리어넷은 상담 내용이 100% 공개되기 때문에 진학정보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답니다. 특정 학교들이 서열화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시 정보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a

1. 담임선생님께 찾아가서 상담해 보기.
2. 영암여고에 진학한 선배가 있다면 정보를 문의해 보기.
3.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영암여고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에서 **교무부장 선생님, 진로진학부장 선생님** 성함이 있으니 전화(061-473-2405)로 문의해 보기.

이아헌님... 이번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할 듯 하네요..... 미안합니다.

후덥지근한 날씨, 축축한 장마. 건강 잃지 않고 즐겁고 알찬 학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곧 여름방학이네요~ 으쌰!으쌰!! 츠츠츠

혹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찾아주세요^^*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8 】

성 명	김 완 규	소속 학교명	대전용산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전공분야지식이 요구되는 상담에 대체하기 위한 자료수집 확인이 쉽지 않아
- 전공변경과정의 현재 대학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전공분야 현재 진로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쉬운 방법은?
- 성인들의 진로변경에 접근하는 기본 방향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상담

현재 물리치료학과에 재학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한학기만 지나면 졸업을 하는데요.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동안 노인분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다른선생님들이 "재는 참 특이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환자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들이 치료하러 오시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인사드리곤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치매환자분들이나 뇌졸중, 파킨슨 등의 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함께 하는 실습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저는 물리치료사로 활동하는 것과 같이 몸을 쓰는 것보다는 말로써 하는 직업을 가지는것이 더 좋을 것같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치료사 자격증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상담사보다는 병을 가진 노인분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상담해주는것은 물론 치료도 병합하면서 더 좋구요..



솔직히 물리치료에서 도수치료쪽으로 나가고 싶은데요. 제 체력상 많이 힘들것 같기는 해서 지금 많이 고민중입니다.. 아프신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이 더 즐겁고 재미를 느끼고 있는지라..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물리치료에 대해 공부할것도 많아서 대학원은 물리치료학과로 가려고 이미 대학원 연계 과정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상담치료사 자격증을 따려면 그쪽 대학원으로 가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현재 한학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임상심리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운님.

노인분들과 소통하고 즐거워하며 병약한 환자들에게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따듯하게 전달할 줄 아는 마음씨를 가진 님에게 존경의 마음마저 다 드네요. 물리치료 실습과정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시고 새로운 진로갈등상황에 빠지게 되셨군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알아내고 진로변경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분명 공운님의 예쁜 마음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이라고 불리는 세대는 과거와는 다르게 더이상 힘없고, 경제력이 약한 세대가 아니며, 이분들 역시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투자하고, 정당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분야입니다. 물론 여전히 한쪽에서는 경제력으로는 자립이 어려워 우리 사회의 소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도 많이 있지요. 공운님과 같은 분들이야말로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날개 없는 천사일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현재 4학년 2학기 곧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고민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공운님은 대학원 전공을 연계한 학부과정을 이수하고 있었고 그만큼 현재 전공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진로를 수정하기 위해서 큰 기회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상담치료사'는 한국심리학회 에 따르면 '임상심리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최초의 단계인 2급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와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 필수적으로 수련시간(임상심리 실무과정)을 거친 이후 2차 수련완료 심의를 꼼꼼히 통과해야 만 자격을 취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운님이 관련 분야 학위취득을 위해선 현재로선 학부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을 통해 이후 과정을 진행하셔야 임상심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자격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더우기 최근 임상심리사 채용동향은 석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심리학과 대학원과정은 선수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타학부 학위자에게도 문호가 쉽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만 1차 기초, 임상심리 과목에 대한 서술식 평가와 구술면접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거나 특별구술전형을 거쳐야 합니다. 후자의 특별구술전형 대상자는 경력과 학위가 심리학과에 맞는 경우에 서술평가를 면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공운님이 현재의 전공인 물리치료사로 사회에 진출하였을 경우에 꾸준히 상담분야 지식을 갖추고 관련업무 수행에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응시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리치료의 직무수행과정에서 환자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자질 중에 하나이지요. 물리치료학과 교수님 중에도 공운님과 마찬가지로 상담에 관심이 있어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활관련분야에 물리치료와 상담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두 학문의 연계수준은 학부과정의 교양과목(재활심리) 협약정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공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은 서적을 통한 개인학습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진로장벽이 높다해서 그 과정을 포기할 수는 없지요. 진로 변경에 대한 갈등 상황을 탐색해 보고, 진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현실조건에 기반하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같은 분야에서 먼저 고민하고 걸어간 학과 지도교수님이나 선배님의 조언을 적극 들어보셔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바로보는 여유를 또한 가져야 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 전직이나 직업변경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분야든 직업의 변경이 단순히 직업의 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시켜나가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운님의 고민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고 두 직무분야의 상호관계를 볼 때 긍정적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처칠(Churchill)의 말인데요, 공운님은 분명 기회를 찾아나서는 낙관론자의 눈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힘내시구요.

커리어넷 드림



【 2반 - 사례 9 】

성 명	오 경 숙	소속 학교명	서울광양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본인의 진로탐색을 이미 마친 상태인 듯하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점에 비추어 장래 희망직업이 이미 나왔을 거로 생각됨. 그 결과에 따라 외고 진학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상담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을지, 답변이 제대로 충족되었을지 궁금함.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자기 탐색 및 자기분석이 이루어진 학생에게 어느 정도까지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해 주어야 할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저에게 꼭맞는 직업을 찾습니다!!

현재 외고를 준비하는 중3 여학생이에요.

외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진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더라고요,,,, 꼭 외고 진학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장래희망 직업이 있어야 목표가 생기고 공부할 의욕도 나고, 무엇보다 이제 제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 질문드려요.

저의 성격이나 소질, 적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데 저의 이런 소질과 적성들을 모두 만족하는 저에게 꼭맞는 직업을 찾고 싶어요.

우선 저는 계획, 기획 하는걸 아주 잘하고 좋아해요. 또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글쓰는 것도 잘하고 좋아하구요. 이 두 가지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또 새로운 것이나 남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고, 비교 분석하는 능력도 좋아요. 변화에 대처하는 적응력도 있고 남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즐기는 편이에요.

도전정신이 있고 단순반복보다는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남 밑에서 월급받고 일하는 것 보다 저의 일을 제가 스스로 꾸려나가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요.

생각해야 할 것이 많죠,, 저의 이런 기질들을 잘 고려해서 어떤 직업이 맞을 것 같은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꼭맞는 직업찾기를 원하는 해린님

안녕하세요, 김00님? 반갑습니다. 커리어넷입니다.

외고를 준비로 자기소개서를 쓰려다보니 자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본 듯 하고 나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듯합니다. 장점도 많이 있는 훌륭한 학생이네요.

00님이 기획력, 분석력, 창의력, 진취력 및 문서작성등이 뛰어난 걸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적성에 어울리는 직업군은 광고 및 홍보전문가(마케팅 전문가, 홍보기획자, 광고기획자등)가 있겠구요. 의사소통능력이 더해진다면 변리사 쪽도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분석력, 논리력에 수리력, 기계조작능력이 좋다면 반도체기술계 연구원, 이공계연구원도 추천해 볼만 합니다.

질문 글로 보아 00님은 매우 진취적이고 분석적이며 창의적인 일에 흥미와 능력을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객관적인 평가는 다를 수 있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 진로심리검사를 권유해 보고 싶습니다. 얼핏 본인의 생각인지, 심리검사 결과인지는 몰라도 자신에 대한 탐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생각 주머니는 해마다 조금씩 커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1년 이내에 검사결과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게 될 일 즉 직업에 대해 가치관검사 + 직업흥미검사 + 직업적성검사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가지게 될 직업에 대해 큰 틀이 보일 것이며 객관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진로 관련 무료 심리검사 사이트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오른쪽 밑줄친 부분을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 커리어넷 /검사·프로그램/ 진로탐색검사프로그램/ [아로플러스](#)

* 워크넷 /심리검사 궁금하세요?(직업·진로)/직업심리검사/심리검사실시/ [진로심리검사](#)

질문내용중에 자신의 성격이나 흥미, 적성에 꼭 맞는 직업을 원했는데요. 위 검사결과로 적합한 직업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일부 부족한 점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점을 00님이 채워나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채워나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00님의 첫글에 외고를 준비한다고 하였는데, 위 검사결과 인문, 사회, 어학계열로 진학한다면 외고진학이 맞지만 혹 이공계열의 진로가 나온다면 외고 진학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해도 될 듯싶습니다.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다면 본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지요.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00님, 고민한 만큼 00님의 앞날에도 화창한 햇살이 가득할 겁니다. 힘내십시오.

커리어넷 드림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3반 사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3반 - 사례 2 】

성 명	김 지 현	소속 학교명	서울 문현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고3 수험생의 진로 혼미 (수시 입시전형을 한 달여 앞둔 7월 15일 상담 신청)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고3 수험생의 진로 혼미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
- 수시 입시전형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답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꿈.

월래 고2까지 제꿈은 약사였어요.

부모님도 약사,한의사를 원하셨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부모님은 수입이 좋은, 회사에서 눈치보면서 근무하는것보다 안정적인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 거였어요. 그중에서 약사를 말하신거죠..

제가 고2때까지 약사를 하고싶은 이유를 말하자면 우선 부모님이 원하고, 딱히 하고싶은게 없었어요 그리고 약사도 일하는게 멋있는거 같아서 그냥 고2까지 장래희망란에 약사를 적어왔어요..

그런데 고3이 된 지금 입시와 점점 가까워지다보니 자연스레 꿈에 대한 생각도 하게되더라고요.

그때 문득 한 생각이 정말 약사가 내가 하고싶어하고 만약 약사가 된다쳐도 즐겁게 일 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약국에 있는 약사를 생각해보니 정말 지루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그렇게 곰곰히 생각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제가 관심있고 즐겁게하는 것들을 찾아보게? 藥 楮?.



저는 낙서나 그림그리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도 점수가 잘나오다보니 다른 과목들보다 관심도 있고, 흥미도 조금 있는거 같더라고요?
 과학과목도 흥미,관심도 자연스레 있고..
 이런 저를 발견하고는 생각해본게 바로 건축과 관련된 직업이었어요.
 건축은 수학과 미술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그런일을 하니까 그일을 하면서 즐거울것 같았고 좋아하니까 그일을 더 잘할거라고 생각하게 되요. 설계같이 수학적,미술적사고를 하는 직업이라면 즐겁게 일할수있을거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왜 건축설계같은 일이 하고 싶냐. 이러면 딱히 이유를 못말하겠어요 그냥 즐거울거같아서, 수학,미술 잘하니까... 좋아하니까..
 이런 이유가 과연 제 꿈의 명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명감도 있는것도아니고.. 그냥 즐거울거같아서,, 약사보다는 재밌을거같으니까.. 이런 이유로 제꿈을 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건축이 죽을정도로 좋다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수학과 그림그리는게 좋아요. 과학도 좋구요
 이런 이유로 정말 건축과로 진학해도 될까요 ?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약사와 건축가

안녕하세요, 배캡님.

진로 선택에 다소 혼란이 왔군요. 날씨도 덥고, 수시 전형은 다음 달로 다가오고,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이 급해지는 때입니다. 허나, 배캡님은 수학 성적도 잘 나오고 과학 과목에 대한 흥미도 지속적이고, 게다가 그림 그리기에도 관심이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니, 자신의 진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고 우선 약사와 건축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고2까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약사를 원했으나, 지금은 약국에만 있는 약사를 생각하니 지루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업은 모두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직업의 한 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요. 약사는 누구나 하고 싶어할 정도로 가치 있고 안정된 직업으로 부모님은 자식이 약사가 되는 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높은 학업 성취도를 요구해서 본인의 관심과 흥미가 있어도 약사가 되기가 무척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현재의 성적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진로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작년부터 바뀐 약사 제도를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해요.

현재 약학대학은 약학전문대학체제로, 일반대학에 진학하여 2년을 수료한 후, 4년 과정의 약학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약학 전반에 관한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약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약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약학전문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것은 일반대학 2년간의 학점, 화학 및 생물학 관련 선수과목 이수, PEET(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 성적, 공인영어시험 성적 등으로 각 대학들이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대학에 들어가도 약학전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요. 약사 자격증 취득 후, 약국, 제약회사 및 공공기관이나 연구원 등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넷 직업사전**에서 약사의 특성, 적성 및 흥미, 준비 방법, 관련학과, 취업 현황, 전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다음은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최근에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건축과를 진학하면 어떠냐고 했지요. 물론 건축을 전공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건축은 공간을 기능적으로 창조하는 일로 인간과 환경에 관한 깊은 관심과 예술적인 안목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커리어넷 **학과사전**에서 건축관련 학과 즉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및 건축디자인학과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이 직업에 종사했을 때 자신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좋겠어요. 건축가는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고 직접 현장을 누비며 폭넓은 대인관계도 요구되지요.

수학, 과학 그리고 미술과 같은 교과목을 직업 선택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가족의 건강, 사회 봉사, 인류 생명 연장, 쾌적한 환경, 삶의 질 개선 등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작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아가 성공, 명예 및 경제적 보상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 행복, 봉사과 헌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자신의 미래와 연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울러,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 적성 및 강점 등도 다시 생각해보고, 관심 직업을 탐색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서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대화하고, 주위에 약사나 건축가가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어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담임선생님과 진로진학상담교사와도 상담하고요.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실을 찾아주세요. 파이팅^^

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3 】

성 명	김 진 숙	소속 학교명	여수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흥미, 적성검사를 하고서도 스스로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점.
-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점.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중학생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로를 좁혀야하는지 수준.
- 검사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언급하면서 상담을 해도 되는 것인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에대해서

전 제가 하고싶은게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어요...ㅠㅠ
 제가 하면 행복해지는것을 생각해보았는데 모르겠구요..
 점점 이제 고등학교도 되고 그러는데 너무 걱정스러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행복해지는 일을 찾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님.

**님은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될 텐데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나 꿈이 없어서 걱정이군요...

이 시기는 꿈이나 직업 하나를 딱 결정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어떤 직업이 더 적합한지를 폭넓게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중학생이기에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

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님의 꿈을 찾고 있는 적극적인 모습이 대견스럽고 흐뭇합니다.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느낄 수 있고 삶의 보람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자기탐색이에요.

그럼 **님의 꿈을 찾기 위해 먼저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스스로 자신이 어떤 것을 했을 때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드는지, 자신에게 의미 있고 보람을 느낀 경험은 무엇인지(성취경험),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이나 인정을 받았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일은 무엇인지, 좀 더 좋아했던 활동,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
2. 자신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가족, 선생님, 선후배, 친구)에게 ‘난 어떤 사람인가요?’ , ‘나의 장점 3가지만 칭찬해주세요.’ ,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다른 친구보다 잘했던 것은 무엇인지요?’ 등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3. 커리어넷에서 검사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느껴지는 직업들을 선택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조사 해보는 것, 또는 공부해보고 싶은 학과 정보를 찾아보는 것,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커리어넷의 미래의 직업세계의 계열별학과, 직업사전의 적성유형별 직업, 직업인 인터뷰까지 꼼꼼히 찾아보고 롤 모델로 삼을 만한 멘토를 만들어 보길 권하고 싶네요.

**님이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있어요.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님 자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와 그 일을 하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일인지를 충분히 생각하면 꼭 찾게 될 거예요.

언제나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주어진다는 말이 있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해결 하려는 마음이 많고 간절할수록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럼 **님의 꿈을 향한 힘찬 전진을 기원하며-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4 】

성 명	김 철 규	소속 학교명	서창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부모님의 기대와 영향속에 잘못된 진로적성 선입견을 가진 학생의 문제점 해결
- 다양한 진로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직업에도 확신을 못가지는 학생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잘못된 진로적성 선입견을 가진 학생들의 진로인식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 이것 저것 어디에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는 진로정체성 문제 협의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목표의식이 사라지고 힘드네요.

제가 어릴때부터 꿈이 의사였습니다. 부모님이 정형외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이다보니 저도 그렇게 꿈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좋긴 하죠. 돈도 많이벌고 명예도 얻을수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멋져보였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문과이과에서 이과계열이고 전국에서 최상위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후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또 논리적이지도 않아서 그쪽으로 타고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을 빼다면 과학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되니 과학도 질리기 시작했죠. 저는 과학을 좋아할 때 까지는 진로검사를 했을때 과학계열이 많이 나왔습니다. 직업추천을 봐도 의사나 치과의사 수의사 이런 것만 나왔구요.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에서 벗어나 다시 잘 생각해보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다시 진로검사를 했습니다. 과학을 싫어하게된 이후로 저의 직업관은 많이 달라져있었습니다. 1순위가 자기성찰력이고 2순위가 예술형? 3위가 신체능력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일기나 제 감정이나 마음을 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완전 감정이입되서 감상하는 것과 노래도 잘 부르는 편이고 악기연주도 배우면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체육이라면 취미로도 삼고 농구나 축구 피구 같은걸 즐겼고 운동을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체육수행평가를 해도 항상 1등급만 받아왔죠. 또 운동신경이 좋다고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중학교때까지 의사라는 한가지 꿈만 가지고 살다가 고등학교에 들어서서 완전 다른 저를 보고는 이제 어떤 직업을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제가 생각한 직업으로는 작가 운동선수 관계사 연예인 등등이 있구요. 제가 가장 부족한 지능은 언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입니다. 글을 쓰는건 웬만큼



하는데 말로 표현하거나 들을때는 좀 부족합니다. 저는 친구도 많이 안사귀고 혼자있는걸 즐기는 편이죠. 이제 이렇게 바뀐 저의 진로를 보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론 최근에 한 진로검사를 더 많이 믿습니다. 정말 맞거든요. 초등학교때는 무언가 부모님께 세뇌 당하고 있었다는...기분? 나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니 16년동안 의사라는 하나의 꿈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버리니 아깝고 목표가 사라져서 공부할 의욕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쟁심이라고 하나요? 승부욕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반계고에서 등수를 치고 올라갈 생각보단 라이벌이라는 것도 평생 가진적도 없었고 승부에 많이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경쟁하는 이 사회에선 적응도 좀 힘든것 같구요. 이제 저도 고등학생이라 점점 초조해지는데요. 어서 제가 즐겁고 재미있게 일할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네요. 제 고민좀 같이 나눠주시겠어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안녕하세요? 희진님, 반갑습니다. 커리어넷을 통해 희진님의 소중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답니다.

16년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사라는 소중한 목표를 어느 순간에 버리게 되었을 때 누구나 허탈하고 막막하고 또 초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간이 될 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한가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희진님이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새롭게 자신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희진님, 그러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 저의 얘기를 참고삼아 새로운 자신의 미래와 꿈을 기대를 가지고 찾아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제가 봤을 때 희진님은 굉장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고 음악에 소질이 많으며 운동신경도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마음을 잘 조절하고 정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그렇게 강한 경쟁심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즐겁고 재밌게 일하면서 이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이 있는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alt: Opt Opt Opt Opt">

전체적으로 이러한 희진님의 특성을 볼 때 희진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는 예체능계의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무용가, 안무가라든가 또는 사진작가나 사진사 그리고 비디오저널리스트, 스포츠 트레이너등입니다. 이러한 직업은 희진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성찰능력과 신체활동능력 그리고 관심이 있는 흥미분야(예술형)와 잘 어울리는 직업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직업들이 희진님에게 가장 딱 맞는 직업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직업선택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뿐만 아니라 직업의 장래성, 가정의 환경

(부모의 지지등)등의 외적요소도 함께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선 희진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초조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내면의 열정과 재능을 찾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커리어넷의 직업심리검사등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검사의 종합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커리어넷의 아로플러스 기능을 한번 잘 확인해보길 바래요. 그러나 이러한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조차도 나에게 별 공감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답니다. 이러한 심리검사외에도 커리어넷의 미래의 직업세계등에는 다양한 직업업선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희진님이 여러가지 검사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아마도 지금 당장 바로 새로운 꿈과 목표를 찾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 희진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잘 할 수 있어. 나도 남들처럼 잘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 그러면서 가능하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꿈을 찾는 거죠.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찾는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진로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희진님, 16년간 가졌던 의사에 대한 꿈을 버린다는 것은 힘들지만요 한편으로 평생의 미래를 가꿀 새로운 꿈을 찾는다는 설레임을 가지고 현재의 고민을 잘 극복할 수 있길 바래요. 그리고 아쉽지만 저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희진님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또다른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5 】

성 명	김 철 중	소속 학교명	배문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직업을 선택(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내담자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근원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다루어 보아야 할지 난감하다.
- 내담자의 선택지가 너무 광범위한 경우 늘 반복되는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점이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이 사례의 경우, 내담자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이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 또는 부모의 영향 등 환경에 의한 것인지 판별해 보았으면 좋겠다.
- 직업 선택을 위하여 내담자가 어느 정도 사전 준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까? 이 사례의 경우 과학 분야 중 두세 개 정도의 직업을 내담자 자신이 미리 선정하여 탐색하게 해 보는 등의 요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업 결정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직업 결정에 열을 내고 있는 고1 여학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치원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것도 좋아하고 잘 돌본다고들 하시고 그리고 적성검사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돌보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 드는 생각이 직업으로 삼기엔 갑자기 좀 그렇습니다. 보수도 많이 받고 싶고 뭔가 정말로 제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아 아이들 좋아하니까 유치원교사...이런느낌? 그렇다고 유치원교사되는것이 싫은것은 아닌데 공부 열심히 해서 아무리 좋은 유치원에 간다해도 뭔가 성취감이 느껴지지않을것 같습니다. 그냥나 중에 나이가들고 할것이 없을때 어린이집이나 하나 차려서 돌보고 싶습니다.

전 과학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1때는 100점도 맞았는데 중2,3 이 점수가 그닥 좋지는 않았습디다. 그래서 포기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중간 기말 과학이 정말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시 과학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과학 말고는 그냥 체육이 아주아주 높게 나옵니다ㅋㅋㅋ 다른건 그냥 보토인것 같고 사회는 좀 싫어합니다...

아까 직업 적성 검사나 흥미검사등등을 했었는데요 그런것들을 할때마다 그냥 내직업이다! 하면서 꽃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 처럼 정말 제가 원하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공했네! 이런 소리도 듣고 싶고 보수도 꽤 받으며 제가 정말 원하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ㅠ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ㅠㅠ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관심 분야의 선정, 그리고 직업의 선택

안녕하세요, ㅎㅎ님(앞으로는 하자하자님이라고 부를게요.)

아이들 돌보는 일이 재미 있고 그에 대한 적성도 있어서 유치원 교사를 희망해 왔는데 이 정도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군요. 하자하자님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큰 성취감을 맛 볼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부을 만한 일, 그에 상응하는 보수와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보장해주는 직업을 찾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유치원 교사가 싫거나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다 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 거지요.

진로를 수정하고자 하는 하자하자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흥미나 적성 속에서 가장 뛰어난 부문을 찾아내어 남들에 비해서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적극성에 대해서는 응원하고 싶기도 하구요. 과학과 체육 과목에 특별한 흥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자하자님에게 있어서 유치원교사는 마치 네모난 홈에 원기둥 형태의 막대기를 꼽으려는 것과 같은 형국일 수 있거든요. 막대기를 억지로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서로 모양이 꼭 같지 않기 때문에 그 틀의 너비가 모자라거나 넘칠 수밖에 없고, 자칫하다가 원기둥의 모양을 손상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하자하자님의 생각에 반대하고 싶지 않은 것이랍니다.

다만 특정 직업을 선불리 정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관심 분야를 먼저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과학일 수도, 체육일 수도, 또는 과학과 체육을 접목한 어떤 분야일 수도 있겠네요. 답변의 제목을 “진로의 선정과 직업의 선택” 으로 정한 이유랍니다. 하자하자님이 과학 과목에 특별히 흥미와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인 과학에 자신의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요. 과학 분야가 자신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이지요.(체육이나 다른 분야로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서는 하자하자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으로 한정하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가 속한 어린이 관련 진로에서 과학 분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과학 분야 중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자라는 말이지요.

세부적인 분야를 특정하여 자신의 희망 직업으로 선택하는 일 역시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게 결코 쉽지만은 않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것들 중에서, 그리고 현재를 넘어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선택해야 하는 데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직업 환경을 하나 하나 탐색해 가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좁혀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요.

먼저 자신의 흥미와 강점으로부터 찾아나가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자하자님은 과학 과목을 특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나 앞으로 배우는 내용들 중에서 자신이 특별히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는 단원이나 원리 등을 포착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그러한 응용을 가능케 하는 일은 어떤 직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등을 따지면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과학의 네 과목 중 물리, 그 중에서 ‘에너지와 열역학’에 관심과 흥미가 있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관련되는 기술들이 어떻게 연구되고 응용되고 있는지를 찾아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알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동안 검사한 흥미나 적성검사의 결과에서 추천하고 있는 직업들을 커리어넷 직업사전을 통하여 하나 하나 탐색해 나가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커리어넷 직업사전 <http://www.careernet.re.kr/JobDic.do>

반면에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하면서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는 방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이트들은 과학 분야의 유망한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전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커리어넷/ 미래의 직업 세계/ 주요 성장분야의 직업세계

http://www.careernet.re.kr/data/data_2009/fusion2011/a00_job_go/a60_job_world.jsp

교육과학기술부/연구자

<http://www.mest.go.kr/web/969/ko/sub/main4.do>

신성장동력 <http://nge.itfind.or.kr/main/main.jsp>

그리고 평소에 신문이나 잡지, 일반 서적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시로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와 전망을 탐색하는 일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 사항이 생기면 바로 관련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의 선생님들께 질문하면서 보다 깊이 있게 정보를 탐색하면 좋겠지요.

하자하자님. 세상의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이 종사해야 할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구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탐색해 나가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답니다.

그렇지만 직업을 빨리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 때문에 서두르지 말기 바랍니다. 진로 선택이라는 것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특정 루트를 정하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지닌 8차선 도로를 달려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자하자님의 경우, 과학 분야라는 8차선 도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지요. 그러므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바다의 아름다운 갯벌을 보기 위해 순천만 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웅대한 산을 오르기 위해 속리산 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것처럼,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해양 과학 관련 직업이나 농림 과학 관련 직업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앞에서 하자하자님을 응원하고 싶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자하자님. 능동적인 자세로 학과 공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직업 탐색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머지않아 현명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공부도 하자! 직업 탐색도 하자! 화이팅.

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6 】

성 명	노 성 빈	소속 학교명	구일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중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무원이 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승무원 진로체험할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나?
- 승무원이 되기 위해 인문계고와 특성화고중 어느 방향인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무원 체험장소
- 승무원이 되기 위한 방법 탐구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꿈을정하기어려워요

안녕하세요이제삼학년인데

걱정이되서올려봐요 1,2학년지금까지정말학원가튼것도않다니고아무생각없이놀이많했어요물론공부도않했구요 시험기간만되면 공부할려고보면 아무것도모르겠구요 정말공부를못해요기초도안되었구엄마아빠는아에신경끄싱듯하구요 ..제꿈은부끄럽지만 스텐어디스인데요,,,,, 정말이일을하고싶고맨날정보만찾고있는데..저는절때못할거같다는 생각이들어서요ㅠㅠㅠ승무원이되려면 인문계를가야겠쥬? 근데이제와서 어찌쥬 ㅠㅠ정말후회가되네요ㅠㅠㅠ그냥막답답해요 어디서부터뭐가잘못뻐고어떠게풀어야되고 내가뭘얼마나해야될지 ㅠㅠ..아..!학교도1,2,3학년합쳐서 무단결석만 30일정도될꺼예요 미쳤나봐요진짜 ㅠㅠㅠㅠㅠㅠ;;

음..제일되고싶은게 승무원이구요!! 또꿈자면 간호사나,,미용쪽인데 다학력이나돈이많아야할수있어서 저는어떡해해야할까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전해림님. 커리어넷입니다.

중학교 생활도 6개월정도 남아 있어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안하고 생활해 온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의 직업으로 승무원이고 그 다음이 간호사나 미용사를 원하고 있군요. 특히 승무원(스튜어디스)은 정말 간절히 원하므로 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미림님은 앞으로 승무원이란 꿈을 향해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절대 늦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되는 방법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항공운항과가 있는 대학 (인하공전, 수원과학대, 안양과학대, 장안대, 한서대학교) 에 입학하여 스튜어디스교육과정을 졸업한 후 국내외 다양한 항공사에 입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일반인문계고를 졸업한 후 항공운항과가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후 항공사에 입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잠월드에 비행기승무원을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잠월드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 후 체험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체험을 해 보면 미림님이 원하는 비행기 승무원(스튜어디스)이 적성에 맞는지 몸소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림님! 직업에는 좋은직업, 나쁜 직업이 없답니다. 행복한 직업은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충실하여 보람을 느낄 때가 행복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3~4년간 교육과정을 받고 대학병원이나 관련병원에서 아픈 환자를 의사와 함께 치료하는 직업으로서 육체가 힘들어도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직업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한 직업이지요. 간호사는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정신이 깊이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 더 잘 맞을지 고민할 때 커리어넷의 아로플러스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읽으면서 어느 직업이 나에게 더 맞을지 정리해볼 수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림님! 인간의 평균수명이 90살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 말은 지금의 성적보다는 꾸준한 목표의식과 그 목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구요 지금처럼 꿈을 가지고 꾸준히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보세요.

또 다른 상담이 있으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 재차 방문해보시길 권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3반 - 사례 7 】

성 명	박 미 경	소속 학교명	충남예술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답변한 내용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의문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상담이 될 수 있을까?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하고싶은게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저는 일반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하고싶은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했는데요ㅠㅠ 우선 저는 지금 웹디자이너와 아동복지쪽이랑 보건행정쪽으로 너무 너무 하고싶습니다. 현재 웹디자이너 필기시험은 합격한 상태이구요 하지만 어른들은 다 아동복지쪽이 제일 나올거 같다고 잘할거같다고 하시지만..ㅠㅠ저는 보건행정도 너무너무하고싶고 웹디자이너도 너무너무하고싶어요 물론 아동복지두요 먼저 제가 아동복지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힘겹게 사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알고 도와주고 싶어서 아동복지를 생각하게됐고요 두번째로 웹디자인은 처음에는 아는분의 제안으로 학원을 다니게 된거이긴 하지만 배우다보면서 너무 재미있고 흥미롭고 제 손으로 컴퓨터상의 사이트를 디자인하고 싶은 마음이 점차 커지면서 필기시험도 보게된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은 보건행정쪽으로도 가고 싶다고 생각한지 얼마 안되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예전부터 마음한구석으로는 안정적인 공무원도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학과를 나오면 보건직공무원이 되니까 공무원도 할 수도있고 보건쪽으로 관심도 꽤 있어서 이 세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대체 도무지..뭘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글을 올립니다ㅠㅠ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 어렵다구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님~ 커리어넷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걱정이지군요. 세상에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직업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구조로 직업이 더 세분화되고 명칭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속극이나 대중매체, 영화 속에 나오는 직업과 주인공이 가진 직업에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고등학생님은 특히 아동복지와 웹디자이너, 복지행정에 관심이 있군요.

위 세 가지 관심 직업 중에 어떤 것으로 결정하면 좋을지를 위해 각각의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면 어떨까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과](#), [사회복지사](#), [웹디자이너](#), [보건행정학과](#), [공중보건학과](#) 등을 알아봅니다.

또 주변에 [아동복지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해보고, [잡월드](#) 등에 가서 직업 체험하면서 장·단점을 분석 해보고, 각 직업을 선택했을 때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지 적어봅니다. 이런 작업들은 고등학생님의 직업선택 갈등을 해소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흥미가 다 직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흥미는 취미생활로 이어갈 수 있고, 어떤 흥미는 자신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요. 가령 웹디자이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은 아동복지사나 보건직 공무원이 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고등학생님의 고민이 좋은 결실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커리어넷드림



【 3반 - 사례 8 】

성 명	박 순 옥	소속 학교명	양산 서창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내담자 스스로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사례가 부담스러웠다.
-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할 때 다양한 정보검색과 달라진 정보를 찾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의 욕구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부합하는 것이 좋을 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외교관 진학문제

외교관이 되고싶어서 외교관에 관한 정보도 많이모으고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 1.공립고를 나오면 외교에나온 아이들과 차이가좀나나요?
- 2.대학교는 자신의 성적에맞게 정치외교학과를 나오면 sky대학교 아이들이 더 이득이되나요?
- 3.외교아카데미는 자신이 20세이상후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 4.외교관을 하려면 꼭 대학교를 나와야하나요?
(+대학교등록금없이 장학금을 받고 다닐수 있나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00님. 커리어넷입니다.

외교관이 되겠다는 진로가 명확히 있어 벌써부터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준비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좋아 보이네요.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모으고 있으나 그래도 궁금한 점이 생겼나 보네요. 몇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그 궁금증을 같이 알아보아요.

1. 외교가 일반고보다 더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외교를 가면 어학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고라고 해서 어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외교관으로 진로를 정했다면 어느 학교를 가든지 어학을 열심히 해야겠지요. 외교 출신이 외교관에 합격률이 높은 것은 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2. sky대학교 출신이 더 득이 되나요?

현재는 외무고시라는 공채시험을 보아야 하므로 시험과 면접, 외국어능력, 한국사 시험 등 기준점을 통과해야 해야 합니다. 노력과 실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요.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든, 어느 대학출신이든 상관은 없어요. 외교학과와 관련된 학과나 법대, 어학계열이면 더 도움이 되겠지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5급공채(외무)공고를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 외교아카데미는 20세 이상이 되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2010년 10월 8일, 제 36대 외교통상부 장관 취임사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하고도 선진적인 선발 제도를 구축하려면 현재의 외무고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21세기 전략적 사고가 가능한 외교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고 하신 이후로 설명회를 거치면서 기존 외무고시를 대체한 외교관 선발 시험과 예비 외교관들을 양성해 내기 위한 [국립외교원](#) 즉 외교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를 도입하려는 외교통상부의 노력으로 단순 암기 위주의 외무고시 대신 다양한 검증을 통하여 외교관선발시험(1단계)을 치르고 뽑힌 사람들이 외교아카데미(2단계) 교육을 통하여 '뽑는 외교관'이 아닌 '길러지는 외교관'을 확보한다고 하네요. 그 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예비외교관들을 뽑기 위하여 국내외 불문하고 예전보다 외교관 선발 전형을 다양화 시키고 다양한 시험을 통하여 분야별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012년 하반기에 국립외교원을 개설하고 2013년에 첫 신입생을 받아 2014년부터 외교관을 배출한다고 하네요.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많은 집중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외무고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외교관선발고사로 바뀌어 치러진다고 생각되네요. 외무고시의 변화과정을 주시하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4. 대학교를 나와야 하나요?(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는 있나요?)

00님이 도전을 할 시기에는 외무고시가 폐지되고 위에서 전달 된 1단계 외교관선발시험(필기 시험 개선 및 면접강화) + 2단계 외교아카데미(1년)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1단계 외교관 선발시험에서는 일반전형(60%), 영어능통자(5%), 제2외국어 능통자(15%)를 각 분야 전문가(20%)를 뽑는다고 하네요. 그 내용은 서류전형(300명 : 영어 및 제2외국어, 한국사 일정등급 이상, 학부성적, 경력증명서), 필기시험(150명 : 단답형 및 약술시험(국제정치학, 경제학, 국제법 등 3개 기본과목), 사례해결형 에세이(기본지식의 실무 적용 능력, 논리력, 상황 및 문제 해결능력 등 평가), 영어(제출된 공인인증 성적 환산 후, 필기시험 성적과 합산)), 심층면접(60명: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자기소개서 제출 후 서류심사, 개별면접, 역량평가)으로 평가한다고 하네요.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안) 설명회 자료 (2011.12.29. 외교통상부)를 참조하거나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02-751-1339, 02-751-1325)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보세요.



공무원(외무)에 응시하는 자격요건 중에 학력 및 경력 제한은 없다고는 하지만 위의 외교관선발시험을 통과하려면 다양한 분야를 준비해야 하겠지요.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진학을 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에 따라 장학금제도가 있으므로 그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요, 국가장학금도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탐색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이 영글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다른 재능들을 알 수도 있거든요.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둔다면 언젠가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노력하면 멋지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커리어넷 드림.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4반 사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4반 - 사례 1 】

성 명	김 대 선	소속 학교명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진로 미결정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 제시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진로 미결정 원인 파악은 적절한가?, 그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정말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2 학생입니다.

정말 진로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서 상담할때나 부모님께는 솔직하게 말하지못해서 너무답답했습니다. 저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것을 아직 찾지못했습니다. 남들은 지금쯤이면 진로가 결정되어있어야 한다고 제게 말합니다. 그런말을 들을때마다 머리가 깨질것 같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제가 모의고사 성적이 3~6등급 다양하게나오는데 이성적으로는 좋은대학을 가기엔 턱없이 부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과를 선택했는데 그건 수학을 너무 못해서였습니다.ㅠ ㅠ이과가면 수학진도가 문과랑 어마어마하게 차이가나는데 저는 도저히 따라갈수없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ㅠ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학원이나 과외,인터넷강의(EBS제외)를 하거나 듣지않고요 저혼자 하다 보니 공부할때 혼자서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있고 그렇다고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하는 성격은 아니구요..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로인해 내신이 좋을수가없고 수시비중은 높아졌는데 저는 정시로 갈수밖에없을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한다기보다 하면서 즐거워하는일은 예체능인 시각디자인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각디자인과 관련된 학과가 있는 대학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대도 있고 이제 와서 예체능으로 돌리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럴 용기조차도 없습니다ㅠㅠ 다른학생들은 1학년때부터 대회도나가고 많은 연습을 해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한게없으니말입니다...



물론 초등학교교사 라는 꿈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선생님께서 교대는 무조건 내신을 많이 반영한다고하셔서....ㅠㅠ..

정말 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공부를 열심히해라 막연하게 이런것말고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안녕하세요. 고등학생님.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이시군요.

눈물(ㅠㅠ) 이모티콘을 4번, 줄임표(.....)를 7번이나 쓰면서 장문의 상담 의뢰를 한 것으로 볼 때 고등학생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는지요. 비록 지금은 진로 선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혼란으로 힘든 상황일 테지만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 이곳까지 방문하여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는 고등학생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래에는 분명 더 큰 성공으로 찾아올 것이니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고등학생님의 **진로 미결정에 대한 고민의 명확한 이유**를 찾아보고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생님의 고민이 ① 명확한 진로 목표가 부재해서 그런 것인지, ② 학교 성적이 부진하여 하고 싶은 일(초등교사)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③ 부모님의 기대나 예체능으로의 진로 전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준비 부족 등으로 시각디자인 전공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음에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④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첫 번째가 원인일 경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고 살면 내 삶이 행복할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우선일 것입니다. 직업 선택은 학교 성적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흥미) 잘 하는 분야(적성)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고등학생님의 꿈을 당당히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고등학생님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해결은 되지 못할지라도 말하지 못해 생기는 답답함이라도 사라지겠지요.

만약 가슴에 담아 놓은 꿈이 없다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생각하고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우리 사회는 진로를 독촉하지요. 남들이 하는 말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들이 고등학생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는 거북이가 피부리는 토끼를 이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공법이 오히려 되돌아가는 수고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필수인데요, 자기 이해에는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흥미 분야 탐색입니다. 흥미란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최고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객관적 직업흥미검사를 이용하거나 주관적 자기 이해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업흥미검사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에 원하는 직업 탐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검사들을 통하여 중복되는 항목들을 찾아보고 공통점을 찾아보면서 내면의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커리어넷 직업흥미검사 바로가기>, <워크넷 직업흥미검사 바로가기>

주관적 자기 이해 활동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나 취미 활동, 일상생활에서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드라마에서 끌리는 직업이나 밤을 꼬박 새더라도 피곤하지 않았던 일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찾지 못하면 적성, 성격, 가치관 검사나 직업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나의 진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수능 모의고사 3~6등급, 수학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과 선택, 독학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내신이 좋지 않으며, 수시 비중이 높은 것은 잘 알지만 낮은 내신 성적 때문에 수능 위주의 정시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학교 성적이 고등학생님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조언이 싫은 것은 알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적 부진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시간을 길게 잡고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될 때까지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는 선생님 말씀처럼 높은 학업 성취를 요구하므로 더욱 내신 성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니 나도 모르게 초등교사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교대 진학이 필수이므로 지금보다 높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동안 해오던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③ 또한 고등학생님은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각디자인 관련 대학을 찾아보았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장벽이 고등학생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후회하는 제자들의 모습



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있고 4년제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직업전문훈련기관에 다시 들어가 기술을 배우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원하는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현재의 삶은 더욱 달라졌겠지요.

예체능으로의 진로 전환이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만약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설득시킬 수 있는 나의 합리적인 답변은 갖고 있는지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단기 진로계획을 세워 부모님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진로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부모님은 더욱 중요하겠지요. 때문에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동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충분한 직업탐색을 해야 합니다. 시각디자이너와 관련한 뉴스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실제 그 직업 종사자 인터뷰 등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커리어넷 직업사전-시각디자이너 바로가기>, <커리어넷 학과 사전-시각디자인과 바로가기>

다른 친구들의 입상이나 나보다 먼저 진로를 결정한 모습에 주눅이 드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앞서 달린다고 해서 꼭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재능발견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시각디자이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예쁜 것에 대해 관심이 더욱 중요한 만큼 실기에 대한 주눅은 전공 학과에 대한 탐색이 부족해 보입니다.

<커리어넷 미래사전 시각디자이너 동영상 바로가기>

진로 전환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문과에서 이과로 계열을 변경할 수도 있고, 나하고 전공이 맞지 않아 전과를 하거나 이중전공, 복수전공과 같이 다른 분야도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계에서 예체능계로의 진로 전환은 두려워할만한 수준은 아니며 고등학교 2학년이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적절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세요.

하지만 지금의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아 쉬운 길로 가기 위해 예체능 계열로 진로 변경을 고민하는 것이라면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낮은 성적 때문에 시각디자이너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좌절하기 보다는 동일한 학과에서 학교의 수준을 낮추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학의 수준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여하, 열정과 성실성이 더 중요하게 대우받는 추세이므로 이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나 디자인 학원 등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④ 이 외에도 내성적인 나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직업 세계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경제적 문제 같은 외적 환경의 장애물은 없는지, 자신감 부족은 아닌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부른 결정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인생 로드맵의 재점검 기회로 삼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나의 현명한 선택에도 난관은 항상 존재함을 명심하고 그 난관에 좌절하기 보다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적응할 것인지 더욱 깊이 있는 성찰을 하길 바라며 부족하지만 성실한 답변이 되었길 기대해 봅니다.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2 】

성 명	김 덕 경	소속 학교명	대림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막연한 꿈에 대해 물을 때가 제일 어려우므로
- 가슴 시원하게 해답해 주고 싶어서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고민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상담하긴 했으나 시원한 상담이 아니어서
- 꿈이 막연할 때의 상담 사례를 알고 싶어서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꿈을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있는 중3여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아직 저의 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 설때 까지만해도 꼭 찾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생각했는데도 지금이시기 고등학교가기까지 몇개월 남지 않은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주위 어른들은 공무원이나 간호사를 추천 하시지만 저는 아직 제가 좋아하는것조차 찾지못한 상태라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중학생이라 성적은 하위 권은 아니지만99등~150등 사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학군이 썩편이라 등수 가 많이 뒤쳐지고

항상 과목을 보면 열심히 한 과목들만 잘 나올뿐 특별히 특출나거나뛰어난 과목은 없는것 같아서 고민 입니다. 제가 잘하는 일이뭐고 잘할수 있는일이 먼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략 적으로 생각해놓은 직업은 약사와 사서 입니다.

사서는 초등학교때 6학년쯤 막판에 책읽는 것이 너무 좋아하여 도서관에가서 매일 책을읽고 초등학교 사서선생님을 도와드리면서 그때 저도 사서 선생님이 되고싶다고 다짐하곤 하였습니 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지 않은건 아닙니다. 사서는 어떤과목을 잘해야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 지고 임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구요. 더군다나 약간 문과/ 그쪽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문과쪽 은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요.

수학이나 과학 생물 족은 그래도 학교에서 재미있게 듣고 열심히 하는편이라서 약사 쪽을 생 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약사는 미래 전망이 좋지 않고 요즘 몇달 슈퍼 에서도 의료약품을 팔

아라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였기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루빨리 하고싶은것과 잘하는 과목을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비전을 찾는 꿈꾸는 중학생님께

안녕하세요?

비전을 꿈꾸는 중학생님. 방문해 주어서 반갑습니다.

중3이 되어 자신의 미래를 일차 결정해야하는 시기에 와 있다는 것도 알고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꼼꼼히 생각하는 꿈꾸는 중학생님은 이미 비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내신성적이 잘 않나오니 속상하겠지만 꿈꾸는 중학생님의 말처럼 좋아하는 과목 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을 골고루 준비하고 꿈이 만들어지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군요. 힘을 내요!!

직업적성검사를 해보면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검사인 진로성숙도 검사에서 다소 낮은 점수가 나온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직업 이외의 진로도 생각해본 후 다시 검사해보길 권합니다. 그러면 좀 더 신뢰할만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면 할 수록 검사들의 결과도 신뢰할만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지요.

꿈꾸는 중학생님.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는 주변의 권고가 자신의 진로를 막연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모님이나 주변의 권고가 그 직업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꿈꾸는 중학생님을 잘 알아서 권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변사람이 좋아하는 직업을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격을 잘 알아서 권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제 중3으로서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꿈꾸는 중학생님을 꼼꼼하게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약사나 사서가 되길 원한다고 했죠?

두 직업 모두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해야하는 직업들입니다.



하지만 약사는 이과에서, 사서는 문과에서 공부해야하는 과이므로 자신이 사회, 지리, 역사, 정치, 경제 등을 잘하면 문과계열로, 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학 등에 흥미가 있고 잘하면 이과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학 마다 이과, 문과를 따지지 않고 교차해서 지원하는 학교도 많이 있으므로 우선 내가 도서관 사서에 더 마음이 끌리는지, 내가 그일을 할 때 행복할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도서관 사서는 꼼꼼하고 분류를 잘해야하며 정해진 도서관에 한명씩 근무하는 반면 약사는 약사 자격증을 갖게 되면 자신이 편리한 곳에서 약국을 개업한다거나 제약회사, 병원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물론 봉급 수준도 다르지요. 두 직업에 대한 고용정보원의 정보를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 링크시킵니다. 고용정보원-직업정보검색-내일을 job아라-보건의료관리직에서 약사를 살펴보면 됩니다. 꼭 한번 더 살펴보세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중요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지를 알려주는 직업가치관 검사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꿈꾸는 중학생님의 꿈이 영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겁니다.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4 】

성 명	백 성 진	소속 학교명	이포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진로를 정해 달라는 학생에게 너무 막연하게 이야기한 듯해서
- 링크를 한 개도 걸어 놓지 않아 상담글이 무성의하게 느껴져서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많은 것을 이야기 하는 내담자의 문제 중 한가지 만 포커스를 맞추어 상담글을 쓰는게 맞는 지
- 상담글에 링크를 걸어야 성의 있어 보이는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정말미치겠어요..도와주세요

제가 초등학교때 그냥부모님이 선생님이라고하셨고 선생님이 제일나은것 같아서 가수나연예인도 하고싶었는데 애들한테 꿈이그거라고 말하면 노래잘부르냐고 물어보거나 그럴것 같아서 아 그냥 선생님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지금막상중3되서 생각해보니까 친구들도 가수되고싶다는 애도있고

그리고 저는 노래를되게 좋아하거든요..근데 노래는진짜너무너무좋아하는데요 부르는건 그냥그래요,, 진성은 높이못올라가고 가성으로는 좀올라가는 목소린데요 막 또그렇게너무 높지는 않아요ㅜㅜㅜ그래서

지금학교에서 선생님이 진로필로할건지 정해오라고 할때마다 고민되서 진짜미치겠어요ㅜㅜ

제가하고싶은게 되게많은데 이걸배울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하고싶은거는요 메이크업아티스트도 해보고싶구요 푸드스타일리스트도 갑자기해보고 싶어졌구요 아니면 헤어디자이너나 미용사 이런거나

가수도 하고싶구요 가수가안되더라도 연예인도 하고싶어요 그리고

저는 중3되니까 갑자기 좀 튀는?직업이 되게 하고싶은거예요ㅜㅜㅜㅜㅜㅜ

아그래서 정말미치겠어요 엄마는 세무사?세무공무원?하튼 공무원쪽 가면 좋다그러시고 아빠는 초등학교선생님을 했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럴까? 이렇듯 싶다가도 친구들이 가수된다고 보컬학원 다닐거라고
 그러는거 보면 진짜가수가 너무하고싶어요TT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진로를 정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할텐데TTTT
 진로를 못정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TTTTTT제발 진짜 알아보기쉽게요TT...제발 저가 진로
 를 정하는데 엄청난 도움이되게 잘 좀 답변해주셨음 좋겠어요TTTTTTTT...저 진짜너무 심각해
 요....TTTT
 아그리구요 제가 적성검사를 해봤는데요 제일높게나온게
 맨날거의 자기성찰 그거거든요??그리고 두번째가 음악이었는데요
 그럼음악을 잘한다는거잖아요,,근데 진 그다지 잘하는편이아니예요,,
 TTT근데 제가 초4때부터 중2까지 합창을했어요 학교합창부에서요
 이런것까지 다포함해서 전어떤진로를 선택해야 좋을지 알려주세요-TTTTTTTTT그리고 아까제
 가 관심있다고 한직업들이 공부는 얼마나 잘해야 되고 어느정도 성적이면 되는지도 알려주세
 요,,TTTT이외에도 저한테 필요한정보 좀많이 알려주시구요TTTT

제가 하고싶다구 한것들이 다 자격증을따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이런것들이잖아요 근데요
 돈만있으면 정말정말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다니고싶은데요,,,,T저희집이 잘사는 것도 아니에
 요,,TTTT너무 못사는건아니지만요 조금못산다고해야되나? 보통이긴한데 그래도 제 학원비 내는
 것도 한달에30만원 조금넘나?그러는데 그런것도 좀벌차요,,TTTT
 최근에 중3되니까 학원다녀야겠다 싶어서 학원다니는거거든요TT
 그래서 정말돈만넉넉하면 아진짜진심으로 너무너무다니고싶은데,,
 어떡해야될지 모르겠어요,,제가 노래를 잘하는것도아니니까 보컬안다니면 안되잖아요..아닐수도
 있지만,,?요즘잘하는사람들도 많고 ...
 그래서 되게 망설여져요....흐아....정말답답하네요,,
 저희언니가2명인데요 제가늦둥이에요 근데 작은언니는3수까지했는데 안뵈구요

큰언니는 알바중인데 대학교갈수있었는데 돈이없어서 못들어갔나?아마그럴거예요,,아닐수도
 있지만,,,
 췌든요.....정말제가너무 절박해서 이렇게 집사정까지 말하고 그랬으니까요....
 제발 자세한테 간단하게!!제가 이해하기쉽게 좀 제가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진로는 뭘로정해
 야 할지 좀알려주세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가까이서 진로체험하기

안녕하세요, TTT님!

일부 친구들은 보컬학원 다니고 부모님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되라 그리고 선생님은 진로정해 오라는 말에 본인의 진로로 무엇으로 택해야할지 고민 많이 되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하셨군요.

π0π님의 진로상황을 정리하면 합창부 활동 5년, 노래에 높은 관심, 메이크업아티스트, 헤어디자이너, 푸드스타일리스트에 흥미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자기성찰과 음악으로 적성검사 결과가 나왔고, 주변의 친구들처럼 보컬 학원에 다니면서 노래실력을 키우고 싶은 π0π님의 마음도 엿보입니다. 가수나 연예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현재 본인의 음악실력으로 주변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는 아니어서 스스로 진로희망은 그냥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두명이어서 본인이 배우고 싶어하는 보컬학원에 부모님의 넉넉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가정상황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메이크업, 헤어, 푸드관련 학과는 4년제 대학이 아닌 2년제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입니다. 관련 자격증을 따서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고등학교 중간이하의 내신성적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가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실용음악학과로 진학을 원하지만 실제 가수나 연예인은 전공에 관계없이 본인의 노력, 끼와 실력으로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중 3인 π0π님은 어느 한 분야의 꿈을 정해 전문성을 키우기 보다 현실적으로 학업성적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본인의 꿈을 하나씩 탐색하고 체험하는 것이 본인이 진정 바라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론에서처럼 어느 한 분야에 특기실력이 탁월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는 소수의 학생보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여 본인이 꿈을 이루는 기초를 닦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당연히 공부만 해서는 본인의 진로를 알 수 없으므로, 방학기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본인의 진로희망을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디자이너가 본인의 꿈이라면 미용실에 직접 가서 미용도우미로 일정 시간 일하면서 뷰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탐색하고 체험해 보세요. 실제 본인이 희망하는 일터로 직접 가서 살펴보면 미용실이 단순히 예쁘게 머리를 만드는 것보다 다양한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헤어디자이너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능력을 갖는게 뷰티샵관리에 중요한지 등등을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해야하는 중요한 이유는 π0π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이해할 수 있는 학생신분이잖아요. 본인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경험해 보지 않고 정해 그것 하나에만 몰두하여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본인에게 너무 손해나는 진로선택입니다. 우선 주변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 체험도 해보고, 직업인터



뷰도 해서 그 직업에 필요한 능력과 적성이 무엇인지 하나씩 찾아 정리한다면 본인의 꿈을 현실적으로 차지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π0π님의 꿈이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계속 스스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체험한다면 미래에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π0π님이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땀탕!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5 】

성 명	서 승 원	소속 학교명	성심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질문의 내용이 너무 짧아 질문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
- 추상적인 질문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학생 본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의 상담
-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질문을 할 경우 답변도 그렇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잡아야 할지 애매모호함.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상담신청서

저는 지금 중학교2학년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빨리 저한테 맞는 꿈을 찾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꿈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보인답니다.^^

김연님 안녕하세요. 커리어넷 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님의 글을 보니 뭔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정작 무엇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는 중에 커리어넷을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로를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에 따른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진로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맨 위의 꿈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구체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이 미래에 하고자 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둘째,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의 어느 학과를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직업이 대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대학을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그 학과가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학과에 따라서 대학은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공부를 한 후 나중에 자신의 성적에 맞춰 그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좀 더 좋은 대학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더욱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님의 흥미와 적성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는 ○○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님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님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흥미와 적성과 더불어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리어넷에 아로플러스(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탐색프로그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커리어넷에 접속을 하셔서

바탕화면 중간에 있는 '아로플러스'를 선택하게되면 질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님은 관심있는 직업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YES"를, 없다면 "N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로플러스를 하시는 중에 직업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타난다면

평소에 자신이 궁금했거나 관심있었던 직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나라의 수많은 직업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기에 대표성을 띤 직업이 들어가다 보니

○○님이 생각하시는 직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님이 생각하시는 직업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로플러스에서 나온 결과를 꼭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님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보충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님은 인생 최초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하고 걱정해본다는 것,

그것은 ○○님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인생의 주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진로탐색프로그램(아로플러스)을 이용한다면 진로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잘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나만의 것을 찾을 수 있을 때

내 꿈은 최대한 구체화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 ○○님이 조금이라도 관심있었던 것이나 즐거웠던 것 등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검사결과와 비교해 보신다면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과 흥미와 적성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알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진로에 대한 궁금증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커리어넷은 ○○님이 꿈을 찾을 때까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6 】

성 명	손 세 화	소속 학교명	배화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질문이 단순하여 답변의 방향 설정이 어려움.
- 이전에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한 적이 있어서 다르게 답변을 작성하기가 어려웠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직업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와 같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은?
- 이전의 답변과 똑 같은 답변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차별화 할 수 있을까요?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건축가에 대해서

건축설계사가 되고 싶어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ㅜㅜ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건축설계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지님. 커리어넷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공간을 만드는 건축사라는 멋진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군요. 그리고 조금 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건축관련 직업은 예전에 비하여 여성들의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성들의 섬세함이 더 부각되는 직업인것 같아요.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건축설계사는 설계의뢰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건물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을 계획·설계하고 건축시공을 감독 및 감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는 일을 적어 보면...

- 계획서 및 계획도면을 건축주에게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한다.
-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및 기간을 산정한다.
- 계획해야 할 대지와 주변의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 건축설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
- 대지와 건물에 대한 수집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한다.
- 건축주의 건축목표와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조건을 평가·분석하며 우선순위를 협의한다.
- 설계목표와 계획의 원칙(설계조건)을 수립한다.
- 계획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설정한다.
- 설계개념에 따라 소요공간을 산정하고 설계의도를 구체화한다.
- 수행프로젝트에 관련된 다양한 법규와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기타 법규를 조사한다.
- 세부법규, 사업성, 개략공사비, 공사비내역, 자재, 시공성 등을 검토한다.
- 공간, 조형, 동선, 배치 및 평입단면을 계획한다.
-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기본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 시공 중 공사도급계약을 검토하고 제안 및 조언한다.
-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및 결정한다.
- 시공자가 작성한 제작, 설치 및 공사 관련 도면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 시공에 있어서 품질, 안전, 공사진척 등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건축에 관련된 용어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답니다.

현지님이 건축설계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여학생인 경우에는 인테리어 설계하는 것을 희망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직업명은 건축설계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설계사는 약간 구분되는 직업 명칭입니다.

참고로 인테리어디자이너에 관한 정보를 적어 둡니다.

인테리어디자이너는 주택, 사무실, 상가건물의 내부 환경을 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설계,장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실내건축가로도 불리며, 호텔,백화점,병원,상점,레스토랑 등의 실내공간을 용도에 맞게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을 하기도 한다. 인테리어디자인업체, 실내건축공사전문업체, 건설회사나 건축설계사무소의 인테리어디자인부서뿐만 아니라



가구회사나 모형제작회사, 투시도제작업체, 호텔 등에서 일하기도 한다.

아래의 방법으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1. 커리어넷 직업정보
2. 직업인 동영상
3. 인터넷 검색
4. 건축설계사들이 직업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적어놓은 책을 읽어 봅니다.

멋진 집을 짓는 건축설계사가되는 꿈을 꾸어보세요!!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7 】

성 명	심 중 욱	소속 학교명	장위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본 사례의 경우도 그렇고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 중에서 연예인을 희망하거나 예술 분야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우 상담자가 그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폭넓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객관적인 기준? 재능이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기획사를 하고 있는 유명인이 했던 말 중에서 자신은 한두 음절만 들어도 재능을 파악할 수 있지만 꼭 재능이 있다고 음악 하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좀 부족한 듯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노력과 또 다른 매력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기도 한다고 말했었다.
- 중학생들 중에, 교사들이 보기에 특별한 재능이 없어 보이는데 본인은 연예인이 되겠다는 희망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학과공부와는 완벽한 답을 쌓고 생활하는 학생에게 어떻게 진로 상담을 진행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었음.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직업

안녕하세요 중1 강00입니다. 저는 저의 미래의 직업 때때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터 춤을 좋아하고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 유명한 댄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고에 가야되는데 엄마가 안텐데요... 그치만 전 꼭 댄서가 되고 싶어요....요즘 갑자기 jyp에 들어가고 싶어요. jyp의 안무 선생님한테서 춤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jyp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래도 잘해야되잔아요...전 노래를 잘 못해요.. 랩나 배우어야 되나요..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TT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꿈을 향한 구체적인 시도

00양, 안녕하세요?

본인이 꿈꾸는 직업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군요.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하고 댄서가 되고 싶어서 세린양은 예고에 진학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허락을 하지 않으시고ㅠ.ㅠ,,,요즘 들어 jyp에 들어가서 춤을 배우고 싶은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노래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스스로 생각할 때 노래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랩이라도 배워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하니까 객관적으로 나의 춤 실력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해보는 활동은 꼭 필요한 것 같네요.

먼저 세린양이 jyp에서 안무를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아래 연결한 곳은 공개오디션을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jyp 공개 오디션 안내](#) 온라인오디션을 통해 객관적인 자신의 실력을 춤추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을 해 보거나, 회사의 공개 오디션 날짜를 찾아보고 시도를 해봄으로써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불어 댄서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필요한 것에 대해 커리어넷 직업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백댄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이 확인되고 본인의 뜻도 확고하다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에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머니가 왜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지도 들어보고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전보다는 더 세린양의 생각에 귀 기울여주실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세린양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댄서들의 경우 학력에 상관없이 춤실력만 뛰어나면 유명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교양은 필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꿈이 한 가지로 확정된 것만도 아니니까 학교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친구들과 더불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해나가면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구체적인 시도를 해보는 것, 꼭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필요한 능력을 쌓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잘 다듬어 가며 이루어 가기 바랄게요. 꿈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질문해주세요. 오늘도 많이 웃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8 】

성 명	양 경 숙	소속 학교명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학생이 가진 꿈은 높지만 현실적으로 성적이 많이 부족한 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최선의 답변인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성적이 중간정도이고 영어 성적이 70~80점 정도이며 동시통역사가 꿈인 중3 여학생에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용기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의 답변은 동시통역사가 되는 방법이나 동시통역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는 데에 그쳤는데, 다른 좋은 답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제품에 대해 갈등이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중학교3학년 여학생입니다.

제 꿈은 동시통역사입니다. 이탈리아어나 독일어,영어를 하고싶지만 저는 학교내신도 안좋고 공부도 못해서 너무 걱정이되요..

우선 학교성적은 전교등수 반에서 조금위정도이고 영어성적은 70~80점정도예요...이래서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지, 통역사가 되기위해 준비하기 너무 늦어서 어떻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나라 언어는 물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될까요..? 통역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ㅠ

일단 지망하는 대학교는 한국외대 통번역학과인데 어떻게 가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걱정되네요..ㅠㅠ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꿈과 희망을 잃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님!

동시통역사의 꿈을 가지고 있으시군요~!

동시통역사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님이 얘기한 한국외대의 경우 외국어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유명하지요~! 물론, 그 명성만큼이나 성적이 우수해야 그 학과에 합격할 수 있겠죠~?! ^^

중학교 성적으로 대학교의 합격 여부를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라 생각되지만, 중학교에서의 기초실력이 고등학교의 수업내용과 연계된다는 점을 명심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님이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직 늦은 시기가 아니니 힘내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트를 방문하여 '입학안내' 정보도 살펴보고, 다양한 학과 리스트 및 학과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덧붙이자면, 다른 대학교나 다른 학과를 졸업해도 동시통역사가 될 수 있으니 커리어넷 사이트의 '직업정보' 검색을 통해 '동시통역사'가 되기 위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님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커리어넷 상담사례에 '동시통역사'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어 추천드리니 꼭~~~ 확인해보세요~!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의 자신을 위해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커리어넷 드림

【 4반 - 사례 9 】

성 명	양 공 원	소속 학교명	한국뷰티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초등학교 6학년 때 독일로 이민 가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가 고민이라 하는데, 독일 교육제도와 진로교육 체계상 독일에서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인지 의문시 됨(독일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가 결정된다고 알고 있음)
- 독일의 교육제도와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와 달라서 답변을 주는데 한계가 있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외국에서 진로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당황스러웠고, 답변에 어려움이 있어 센터 선생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6학년때 독일로 이민와서 지금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그런데 곧 졸업을 하고나서 무슨과를 가야할지 너무 막막해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서 그런지 더더욱 뭘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제 장점이자 단점이 뭐든 다 잘하지만 특출나게 잘하는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TTT

그래서 어떤과를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 너무 고민되요..

뭔가 이거 아니면 안되다 하는 열정같은데 있으면 좋을텐데

이것도 저것도 재밌긴하지만 평생하고싶진 않다... 이런정도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선택정할수없는것같애요

돈도많이 벌고 성공해서 엄마아빠호강도 시켜드리고 싶은데

만약 내가 이걸하게된다면 미래가 불안할거같고

그래서 좀더 안전하고 돈 많이벌수잇는걸 하자니 뭔가 사는거같지 않을거같고

미술, 수학, 언어 다 좋은데 어떤걸 택해야할지도 잘모르겠어요

웬지 내가 아직 나한테 꼭맞는, 내가 정말 열정을가지고할수잇는 직업들이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거같기도 하고 어른들이 보실때마다 다들 어디대학갈거냐 물으시는데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빨리 딱 이거할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관심직업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수진님.

초등학교 6학년때 독일로 이민을 가서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할 때가 되었군요.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여야 하는데,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요. 특출나게 잘하는 것은 없지만, 뭐든지 다 잘하는 편이라 하였으니 어느 쪽이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소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부럽네요.

수진님,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위의 인물 또는 평소 존경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책이나 잡지 또는 TV 등 다양한 매체를 접하다가 그 직업이 나에게 맞을 것 같아서, 주위의 친구들이나 부모님,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자기에게 잘 맞는 진로를 찾기도 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 심리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선 수진님께 커리어넷의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추천할게요.

그 다음에는 심리검사 결과 제시되는 직업군 또는 수진님이 평소 호감이 가는 미술, 수학, 언어와 관련되거나 주위 사람들이 권유하는 직업군을 기초로 해서 각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소 흥미를 가지고 있는 직업군과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직업을 두고 저울질을 하기도 하였는데,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직업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커리어넷 - 직업정보]의 직업사전 또는 분야별 직업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를 더 추천한다면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직업정보 - 나에게 적합한 직업]에서 자신의 특성과 직업을 연결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관심 직업군에 대한 탐색을 통해 각 직업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떤 자격과 능력이 필요한지, 일을 해나가면서 겪을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점등은 무엇인지, 자신에게 그 직업이 맞는지, 맞지 않다면 어떤 점이 그러한지,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고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보며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도록 해요. 독일과 우리나라의 교육체계가 산업구조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므로 교내 진로 코치님과 상담 과정도 거치면 더욱 좋겠네요.

수진님, 진로선택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 하는 것을 찾아 진로 방향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 중에서 편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진로와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할것 같아요. 수진님의 적극적인 직업탐색 활동을 통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내어,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학과로 진학하길 바랄게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시 방문해서 질문 남겨주세요.

커리어넷 드림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5반 사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5반 - 사례 1 】

성 명	유 인 응	소속 학교명	옥련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답변하기 어렵게(까다롭게) 느껴지는 내담자 유형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자기이해와 진로결정이 전혀 되지 않고 상담을 신청한 경우의 상담기법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제가 취업을 나가야할까요 대학을 가야할까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일단 군대 일찍 갔다와서 폴리텍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여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모아 치킨집이나 하나 차리는게 낡을까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까요?!

대학교도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그리고 제가 좋아하는게 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전 어떻게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TT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내가 뭘 해야 하지?

안녕하세요?

내가뭘해야하더라는 닉네임이 글쓰신 분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듯 합니다. 전문계열 고등학교 3학년이시면 취업이나 진학준비 등 여러모로 바쁠텐데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네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와 관련된 직업을 선호할



텐데요. 하지만 과연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면서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설령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면 아마 그 직업에 오래 종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진로와 관련된 각종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이 곳 커리어넷에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의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파악하고 난 후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학과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고등학교이므로 진로진학상담부 선생님과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3학년실에 비치된 취업, 진학자료들도 검토해 보십시오. 보다 자세한 직업과 학과에 관한 정보는 커리어넷 직업사전이나 학과정보 코너도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입상담센터(1600-1515)에 조언을 구하시면 구체적인 대학과 학과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폴리텍대학의 경우 전문대학이며 산업학사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합격 가능선은 실질적으로 5~6등급 정도로 생각되지만 학과별로 차이가 있으며, 실제 입시결과를 보면 8~9등급도 있고 하니 직접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에서 참고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폴리텍대학은 한 해 약 400명의 입학생이 들어오고, 1년 이내에 약 150~200명 정도가 자퇴 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적이 낮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 공부도 그만큼 쉬울 줄 알고 들어온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또한 폴리텍대학의 학점 시스템이 전문대학보다 20점 가량 많으므로 학기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못 버티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초 입학생 중 남은 약 50%의 인원을 취업 대상으로 보고, 그 중에서 30% 정도가 대기업 현장직에서 근무를 합니다. (생산 현장의 경우엔 대기업을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게을리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폴리텍대학도 본인의 적성에 맞아야 하며, 또 다른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야 하는 곳이며, 단순히 기술 취득 후 손쉽게 취업을 보장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모쪼록 진로 적성을 먼저 잘 파악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나 학과의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로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또 궁금하신 점은 상담신청 하셔서 다시 만나보길 기대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3 】

성 명	이 강 준	소속 학교명	경산여자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자기이해 및 목표의식
- 워크넷 적성검사 활용방법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자기이해에 대한 항목,분석,대상에 따른 내용
- 적성,흥미에 대한 사례,적용,관련 내용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제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쌤의 숙제로 이 사연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당~ 이거 자랑 아닙니당
~ 종이접기,노래부르기, 요리하기,연기하기등등을 잘하는 데요.
제가 원하고 하고싶은 직업은 모델,가수,연예인입니다.
여러분께서 골라주세요.
감사합니다람쥐^^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은서님이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은서님이 진로및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의식이 없이 선생님의 과제로 인하여 사연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목표지점을 정해놓고 갑니다. 우리 인생도 무작성 계획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꿈과 희망을 갖고 생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진로선택입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홀로서기 유형"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유형으로 젊어서부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 적극적으로 행동을 옮겼다고 합니다. "무기력 형"은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노인들로 이들은 젊어서 목표는 커녕 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계획하여 "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1) 먼저 자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즉 내가 누구인지,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내가 잘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적성, 성격,흥미 유형을 정리해 봅시다. 나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스스로를 통하여 알아보는 방법,다른 사람을 통하여 알아보는 방법,여러가지 검사를 통하여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나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한 가지 방법 보다는 여러가지 방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적성과 흥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알려 드릴까 합니다 .

1.시험 공부를 할때 별로 힘들지 않고 공부를 할수 있고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아니면 지금까지 받은 성적표를 모두 꺼내 놓고 어떤 과목이 꾸준히 상위권 성적인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2.지금까지 학교 생활하면서 주변의 사람들(부모,친구,선생님)로부터 칭찬이나 격려를 받거나 학교 생활에서 각종 상을 받은 경험을 한번 더 떠올려 보세요

3.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어떤 일에 푹 빠진 경험으로 어떤것이 있었는지 기억해 본다

4.커리어넷과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소년용 흥미검사나 적성검사,가치관검사를 한번 해보는건 어떨까요?

커리어넷 적성검사는 자기보고식 검사이고 워크넷 적성검사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5.자신의 성 정체성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6.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은서님이 지금보다 한층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 미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미리일기"를 써 보는 건 어떨까요?

3)은서님이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 종이접기,노래부르기,가수,연예인,모델,요리하기,연기하기등 음악 관련직인데,

이것은 홀랜드 성격 흥미유형검사에서 현실적 흥미, 예술적 흥미에 포함되는데 자기 표현을 좋아하고 창조적,독창적이며 다양한 재능과 예술적 소질이 있어야 합니다.

가수는 뛰어난 노래 실력과 청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음악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창의력을 갖추어야 하고 끼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하고 예술형과 사회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정직,인내심,신뢰성, 책임감 등의 성격을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은서님!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적성과 흥미를 찾아 미래의 꿈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학생 답지 않게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은서님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 불투명한 미래가 유리창과 같이 투명한 미래로 바뀌지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서님! 이제 답답한 마음이 조금 해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좀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더

상담글을 올려 주세요. 자신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은서님의 앞날에 무지개빛 아름다운 꿈이 펼쳐지길 바라며 이만 줄일게요.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4 】

성 명	이 경 기	소속 학교명	광주인성고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자신의 답변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의문이 드는 사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일반적인 질문(꿈이 없어요)에 대한 답변이 너무 정형화되는 것 같은데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해야 되는 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잘하는게없어요

커서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잘 하는 것도 없고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꿈은 꾸는 사람의 것입니다.

비밀님! 안녕하세요?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주셨군요. 뭘 하고 싶은 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 하거나 좋아하는 게 없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여유를 갖고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과 선호하는 활동을 찾았으면 합니다. 비밀님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비밀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 번쯤 꺾어야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님은 이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밀님은 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파이팅 하세요.

직업에 대한 흥미에 앞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밀님 자신은 어떤 성격인지, 사람들은 비밀님의 어떤 면을 칭찬하는지, 재밌어서 웃게 되는 일, 무엇을 하며 놀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근무환경을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신이 나고 마음이 즐거워지는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일을 좋아하는지, 혼자 뭔가에 몰두하는 일을 좋아하는지 등의 주제에 따라 고민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심분야 목록을 만들어서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는 것보다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해놓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 정리하다보면 원하는 방향을 찾아 생각을 점점 더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직업 및 학과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진로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커리어넷 심리검사도 이용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심리검사한 후 보다 자세한 심리검사 해석이 필요하다면 **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상담교사에게 해석을 부탁** 드려도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해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오히려 막막하다면, 역으로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며 자신의 특성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 및 학과에 관한 정보는 커리어넷의 직업정보, 학교·학과 정보, 직업사전, 미래의 직업세계 등을 활용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밀님! 늦지 않았으니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자신을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비밀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시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을 올려주세요.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5 】

성 명	이 정 석	소속 학교명	홍성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답변 만족도 “4”
- 전반적으로 답변내용이 2%(뭔가 짬짬하게) 부족함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내담자의 지지와 격려가 부족 - 내담자를 기분 좋게 할 만한 지지와 격려 방안
- 내담자의 맞춤형 답변 부족 - 내담자의 특수성보다는 일반적인 두리뭉실한 답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결정..어떻게하죠..TT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 입니다.

제주위의 친구들은 확고한 꿈이 있는것 같은데 저는...TTT

더욱 지체하다가는 고3이되도 결정 못할것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싶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요. 제가 우위이고 싶어요...;;ㅎㅎ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생각 해봤는데 제가 특별하게 잘하는 과목도 없고,교대에 갈 자신도 없어요. TTT (제1학년때 내신은 2.4 정도 였어요,모의고사는 평균4~5등급...) 딱딱 하기만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학교 상담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봤었는데 제성격이 딱 여군 이라네요; 여군도 생각해봤는데 제가 잘 할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고요, 남자가 많으니까 성폭행 이런것도 무시못 하겠어요TTT

아..돌아버릴것같아요..TTT저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자면 소심할때는 소심하고 대담할때는 대담 해요ㅎㅎ그리고 정의(?)롭다고 해야하나요? 암튼 그렇고 리더쉽도 있어요!(제생각엔ㅋ)

부모님은 도서관사서를 하라는데 그건별로 하고싶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그외에 생각해본것은 회사원, 상담사,청소년지도사,경찰,등등....근데 다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선불리 뭘하겠다 라고 결정을 못하겠어요. 저한테맞는 직업들이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저의 진로는 어떻게되는

것일까요..도와주세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너무 완벽하게 목표를 세우려하는 것은 목표를 잡는데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하군요. 우선 학생이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원한다고 하시니 편의상 너네임을 도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조차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도움님은 고등학교 2학년 이지만 진로 목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늦은 것은 아니기에 충분히 진로를 정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도움님이 장래의 진로 목표를 정하는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도움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도움님 스스로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나 흥미로웠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잘 모르겠다면, 가족들이나 선생님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님이 무엇을 잘하고 흥미를 갖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적성검사를 한 것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가 도움님의 맘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적성검사결과들을 참고하고 도움님이 좋아하는 것이나 잘할 수 있는 것들, 주변의 선생님이나 가족 등의 조언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적성검사는 이곳 커리어넷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결과를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그 목표가 나중에 달라진다고 해도 일단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일 도움님이 설정한 목표가 달라진다면 그 때가서 다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님은 남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니 도와줄 수 있는 직업도 생각해 봐야 하겠지요.

이렇게 도움님이 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목표로 설정하느냐는 도움님의 성향을 생각하면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직업에는 도움님이 활동적인 성향일 갖는지, 꼼꼼하게 연구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생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예술적이거나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든지, 주어진 임무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누가 시키는 일을 그저 열심히 잘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의 성향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것들을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직업군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직종을 선택하는데 현재 도움님이 문과인지 이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범위를 더 좁힐 수 있겠지요.

현재의 목표가 완벽한 목표설정이 되기를 바란다면 결코 어느 목표도 세울 수 없습니다. 앞서서도 말했다시피 목표는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확실한 목표를 세우려다 보니 스스로 진짜로 무엇을 택해야 할지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여군도 생각하셨다니 그 부분도 고려대상이겠지요. 어느 분야든 좋지 않은 부분만을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성공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하기도 힘든데 실패할 생각을 한다면 목표설정이 힘들 것이고 어느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직업이든 쉽게 편안하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이든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재미가 있거나 성취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힘든 일이 힘든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피하려고만 하시 마시고 정말로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차분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면 저 역시 더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알차게 보내시고 도움님의 현명한 목표설정과 그에 맞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6 】

성 명	이 정 원	소속 학교명	전남미용고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 직업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 보통 잘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상담해 왔는데 좋아하는 것은 못하고 잘하는 것은 싫어한다고 하여 당황됨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 직업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런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아보고 싶다.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저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기는 한데, 제가 못하는 것이고 제가 잘하는 것은 제가 싫어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좋은까요?

제가 싫어하는 진로를 고른다면 제가 행복하지 못할것이고, 그래서 제 진로를 못찾고 헤메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건 못해서 걱정이고, 잘 하는 건 싫어하는 일이라 진로를 못 찾고 있어 고민이군요.

좋아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이 일치하면 정말 좋겠지만 평생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열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전문가 선생님들과 상담 하여 객관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의 적성을 진단 후에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들보다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은 많이 실력이 부족해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주위의 평가에 흔들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없이 노력할 수는 없으니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년 노력해보고 아니면 과감히 포기한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준비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좋아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면 그와 관련된 직업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가 되고 싶은데 노래를 못하면 음악관련 분야로 작곡가, 작사가, 성악가, 연주자, 음악치료, 음악 PD 등 다양한 직업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지희님이 좋아하는 분야를 넓게 생각해 보고 관련된 일을 찾아 보세요.

잘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별로 흥미가 없다면 내가 가진 잘하는 능력과 관련된 일들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보기바랍니다.

커리어넷 직업사전 - 적성별 직업찾기

아직 중학생이니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경험과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싫었지만 자신이 잘하면 주변의 칭찬과 격려로 더 잘하게 되어 만족을 느끼게 되고 자부심이 생기게 되니까요.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 장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7 】

성 명	이 지 상	소속 학교명	인창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자신의 진로 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른 꿈을 동경하는 학생임
- 어느 정도 입시 준비가 이뤄진 상황에서 학생의 흥미나 적성 혹은 재능을 파악하기 어려운 온라인 상담에서의 상담법이 궁금함.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진정으로 이 학생에게 적합한 진로는 무엇인가?
- 혹 다른 진로를 추천해 줬을 경우 또 다시 그 진로에서 같은 고민과 갈등을 얻게 되지는 않을까? 이 학생의 의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결정하기가 힘드네요..

저는 고1 여름방학때부터 실용음악 작곡을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 이걸 해야겠다 이런 확신은 없었지만 저랑 잘 맞을거같아서 열심히 했는데 ..

연습도 열심히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재능이 있는거 같지도 않고,

물론 재능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자신감이 필요한데 영... 자신감이 없네요..

입시라서 재미가 없는건지...

어릴때부터 예체능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미술이나 사진작가 연기자 조경사 이런것들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

연기자가 요새들어서 너무 하고싶은데 어찌죠 ㅠㅠ



작곡을 잘할수 있을지 재밌게 열정을 가지고 잘할수 있을지 자꾸 의심이 생겨서요 ..

음악은 취미로 해도 나쁘지 않을거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직업으로 삼기엔 그만큼 제가 음악에 대한 열정과관심이 부족한듯 하네요...

좋아하긴하지만 그만큼 좋아하고 앞으로도 좋아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여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OO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제게도 느껴지는 듯 합니다.

이제 실용음악에 관한 공부를 1년이 조금 모자르게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이고

내가 제대로 진로를 선택하여 나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때문에 다른 직업이나 진로에도 자꾸 눈이가고

정작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는 능률이 떨어지는 상태인 것이지요.

최OO님의 성적이나 실기수준을 알 수가 없으니 일단 각 분야에 대한 재능이나 적성의 차이가 무시하고

각각의 분야에 보편적이고 균등한 조건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OO님에게 아쉬운 점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 지 혹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확실한 분석이 없이

진로를 이미 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선시 되는 것은

내가 잘할 것 같은 직업이나 혹은 나에게 어울릴 것 같은 직업이 아니라,

내가 평생동안 하더라도 그 일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직업이나 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적성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눈이 좋지 않은 학생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거나

공간지각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도선사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의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정도의 적성문제가 아니라면,

즉 여러 직업의 능력 차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나의 흥미 일 것입니다.

최OO님은 본인이 어떤일을 가장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직업은

이제까지 공부 해 왔던 실용음악이 우선이 되겠고 그 외에도 미술가, 사진작가, 조경사, 연기자 등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용음악을 계속 하는 것에 주저하는 이유는 입시에 재미를 못느끼고 자신감이 없어서 이겠지요.

그리고 요즘들어서 하고 싶은 것은 연기자 인 상황이구요.

그런데 정말 연기자는 OO님에게 맞는 직업일까요?

막상 연기자가 되기 위한 공부와 입시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의 음악공부에서 오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또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요?

OO님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직업을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직업정보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소리를 듣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미술가, 사진작가, 조경사, 연기자.. 이 모두 하나같이 다 좋은 직업들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직업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맞는 직업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나에게 가장 좋은 직업은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입니다.

OO님이 애착을 갖고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 볼 때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음악공부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 볼때 연기자에 대한 흥미도 열정이라기 보다는 호기심에서 유발된 것이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OO님이 정말로 음악을 공부할 때와는 다른 강한 의지나 열정이 있다면 연기자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연기자에 대한 강한 의지나 자신감이 생겨서 연기자가 하고 싶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음악공부에 지쳐서 새로운 동경 대상으로 연기자를 떠올리게 된 것인지는 본인이 직접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OO님이 처음 음악이라는 진로를 선택했을 때를 기억해보세요.

분명 그 당시에는 다른 그 어떤 진로나 직업 보다는 특별해 보였을 것입니다.

처음 음악을 선택했을 때 OO학생은 어떤 직업을 꿈꾸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10개월 정도 지난 지금, 그 당시와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처음 결심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왜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음악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이라면,

음악과 관련하여 조언해줄 사람들을 찾아 의견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만 있게 된다면,

내가 어느 진로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는 어쩌면 너무도 쉽게 판단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진로에 대한 결정 혹은 확신으로 최OO님의 불안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커리어넷 드림

【 5반 - 사례 8 】

성 명	이 행 자	소속 학교명	수원 매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평범한 것 같지만 답이 쉽지 않아서
- 광범위한 질문으로 인해 답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무엇을 정말 궁금해 하는지 모르는 상황
- 성적에 관한 질문일 때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서 (예 -5등급으로 인하대를 가고 싶어요....)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모든 게 다 너무 막연하네요..

저는 현재 인문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미래에 대해 고민 많은 여학생입니다. 제 꿈은 식품업계 CEO인데요. 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제가 저만의 아이디어 식품을 개발해서 저만의 가게를 꾸리고 싶은 건데요. 전 지금 이과에 있는데 이과에 온 건 참 바보 같지만 사회가 싫어서였습니다. 지금도 싫은 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통 씨이오는 경영 쪽이어서 문과에 많이 가잖아요. 어디 가서 제 꿈은 씨이오다 라고 얘기하면 근데 왜 이과 갔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어느 과 던 상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소릴 자주 듣다보니 제 생각도 흐릿해진 달까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달까요? 요즘 들어 제 미래가 너무 막막하고요. 공부도 그렇게 썩 잘 하는건 아니지만 수도권대학은 가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인하대 정도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은 과예요. 씨이오라고 하면 당연히 경영학과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제 꿈이 씨이오라고 해서 경영을 꼭 배워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경영은 제가 책 사서 독학해서 하면 되고 저는 제사업의 소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내신은 5등급정도이고요 제가 철이 없어 그런지 요즘 제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도 해 보았는데 제가 한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할 시간에 공부를 더해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진 전 정말 철이 없어서 그런지 대학도 구지 가야 되나 싶어요 제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어요 주변 애들도 물어보면 정확한 이유가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이런 현실이 너무 싫고 그래서 더더욱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요TT 뭔가 동기 부여를 줄 만 한 게 없을까요 아



너무 투정 버리는 것 같네요..음 고민을 총정리하자면 저는 어느 과에 진학을 해야 할지와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을지와 제 꿈을 이루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예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TT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미래 식품업 CEO가 될 님에게.

안녕하십니까? 00님.

커리어넷입니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가지고 이러저러하게 궁리를 해보는 00님이 참 기특하군요. 식품업계의 CEO라고만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상담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진학도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다는 00님의 대학에 대한 생각도 나름대로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몹시 용기 있는 학생 같다고 느껴지는군요.

식품업계의 CEO가 되고 싶은데 이과여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00님이 가고 싶어하는 진짜 꿈은 00님만의 독특한 어떤 식품을 개발해서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CEO인 것 같거든요. 많은 CEO들이 경영학을 문과에서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다른 전공자들도 많이 있고 다른 전공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다면 교차지원이 가능하니 고려해 볼 수 있고 식품관련 전공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00님이 생각하는 대로 독특한 식품 개발을 위해 심층적인 전공을 원하는 것 같은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식품 관련된 학과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교차지원에 관한 것은 해당 대학의 입학안내를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00님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주변의 또래 친구들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특히 00님 관심 식품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의 홈페이지를 탐색하거나 학과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역시 인하대는 입시전형이 참 많아요. 홈페이지를 탐색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캠퍼스 탐방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지금 5등급 정도로서 수도권의 대학을 진학이 가능한지를 궁금해 하고 있는데 내신을 착실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식품과 관련된 공부는 공부할 내용이 많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기초적으로 다 활용된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해 두면 대학 진학 후 공부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 대학 진학을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자격증을 준비해서 실무현장으로 바로 진입하여 경력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문에

관심 분야의 하나의 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스크랩해나가면서 관심을 키워 가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미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어떤 식품업계 CEO가 될 것인지, 왜 그런 CEO를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고민을 좀 더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직업심리검사한 것에 의하면 대인관계 능력이 정말 탁월하고 창의력 및 신체능력 분야에 뛰어난 적성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00님은 CEO로의 기본적인 자질이 풍부해 보여요. 다만 아쉬운 것은 구체적이지 않고 남의 말에 쉽게 내 생각을 접는 경향이 있어요. 구체적인 생각들을 써보고,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구해보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CEO가 되기까지는 낮은 자리와 다양한 업무, 관심있는 업종에서 배우는 과정과 경력개발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러니 최종목표는 최고경영자라 할지라도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서부터 경력을 쌓으며 최고경영자의 기초를 시작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과를 선택하면 더 좋겠고 대학에 가서는 더 구체적인 관심사를 확인하고 경험을 해나가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적성에서 식품업계의 CEO 자질이 풍부한 00님. 힘내시길 바라요. 사람에게 먹거리는 아주 중요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개발할 것인가 앞으로 더 충분히 찾고 고민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영분야의 지식과 경력을 통해서 개발한 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CEO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 의식도 아주 중요한데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의식이 성장했으면 합니다. 모쪼록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더욱 힘내서 미래의 멋진 CEO로서의 준비를 구체화시키는 시기로 여름방학을 더욱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요.

커리어넷드림.



【 5반 - 사례 10 】

성 명	장 정 석	소속 학교명	계성정보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회계사무원이 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특성화고에 다니고있는 고1여자입니다

솔직히 이학교에온거 웬만한사람은 다 취직 시켜준다기에 왔었는데

막상 들어오고보니 아무데나 간다고 되는일인가 싶기도하고

진로시간이란게 있기에 장래희망에 관심을가지기 시작했어요

진로시간에 커리어넷에 들어와서 무슨직업이있는지 어떤일을하는지
봤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문서작업같은거 하는 직업을 원해서 사무원 치다가

회계사무원이라는걸 봤어요 수학은..나름점수 좀 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원하는 직업이 생겨도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자격증은 워드3급 한글a 엑셀a 파워포인트a 정도 있어요

물론 더따야한다는건 아는데 어떤걸 어떻게 따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는법도모르고

입학때부터 지금까지 받은상 하나도없고 공부를 잘하는것도 아닌데..

평균은 50점대에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암기과목에 약해서 잘안되네요

그래도 열심히해서 회계사무원 되고싶어요

아 그리고 회계사무원 돈 잘 못버나요?

저희 엄마가 회계사무원은 돈많이 못번다고 하시던데..

음.. 질문을 정리해드릴게요..

1) 회계사무원이 되기위해 필요한 자격증(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1-1) 자격증 따는곳

2) 이력서,자기소개서 쓰는법

3) 회계사무원의 조건

4) 회계사무원의 초봉 , 월급

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회계사무원의 꿈을 이루고 싶으시군요.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은서님이 학교 진로시간을 통해서 회계사무원이라는 구체적인 직업을 만나 직업 탐색도 하면서 나의 꿈으로 생각하게 된 것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특성화고 1학년 학생으로 여러 종목의 ITQ자격증 최고등급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대단하네요. 자신의 희망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꿈 갖고 그 꿈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을 조목 조목 질문으로 정리하여 상담해 주셔서 고맙네요.

먼저 회계사무원 업무는 회사의 손익계산 결산서, 세금 납부를 위한 장부정리 등의 일을 합니다. 따라서 회계사무원의 적성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회계사무원은 직무능력에 있어 회계 원리에 맞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회계업무가 전산회계로 이루어지므로 업무처리를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성적으로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치밀한 성품을 갖추어야합니다.

회계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인정은 취득한 자격증이 말해주겠지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과 자격증 시행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산회계(2급,1급),전산세무(2급,1급),전산세무회계시험 -한국세무사회 시행



세무회계, 기업회계(3급, 2급,1급) - 한국세무사회 시행
전산회계운용기능사(3급, 2급,1급) - 대한상공회의소

회계사무원의 급여는 능력에 의해 정해지므로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더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졸 초봉으로는 110-140만원 정도이며, 일반적인 임금수준은 [커리어넷 직업사전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회계사무원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신의 업무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업무역량은 소득 수준과 처우의 안정성을 한꺼번에 보장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취업 후에도 평생학습 기관인 대학 또는 사이버 대학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력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은서님은 미래 취업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방법도 알고 싶어하시군요. 특성화고에는 취업지원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시고 계시는 전문가 입니다. 은서님 학교에도 취업지원관 선생님이 계실겁니다. 찾아가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다른 어떤 곳에서 상담을 통해 배우기보다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을겁니다.

1학년이면서도 자신의 진로를 향해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은서님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2012년 커리어넷 상담위원단 슈퍼비전 자료집

6반 사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6반 - 사례 1 】

성 명	조 광 제	소속 학교명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슈퍼비전의 내용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는 생각이 앞선다..
-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본질적인 질문이 중요한가?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가?
- 너무 형식적으로 일률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 실제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정보만을 제시할 경우 어떤 문제가 야기될까?
-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문과?? 이과??

부산대 고고학과를 갈려고 하는데 문과를 가야되나요 이과를 가야되나요?? 고고학과가 문과계열이지만 화학을 더 배우고 싶은데요

고고학과는 이과 문과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고학과에 가서 유물을 직접 발굴하고 자기가 직접 또 그걸 연구 할 수 있나요??발굴도 하고 연구도 직접 하고싶은데 그럴 수 있나요??? 주위에 관련직업 가지신 분이 없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고고학과에 대한 안내

소현님~~!!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올해는 마른 장마로 인한 가뭄으로 많은 농민이 고통을 받고 있지요. 이럴 때 단비라도 내리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마침 이번 주말 장마전선이 북상한다죠. 참 많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상담이 소현님의 고민을 씻어 주는 단비와 같은 것이 되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소현님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고고학과를 진학하고 싶은데 더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자연계열 과목이라서 계열선택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고고학과를 진학하여 자신이 해보고 싶은 분야를 직접 연구할 수 있는냐는 고민인 것 같아요.

고고학은 인류가 출현한 이래 인간이 남겨놓은 물질자료, 즉 유적·유물이라는 고고학자료를 연구재료로 전 시기, 각 지역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복원 연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공 분야는 크게 선사고고학과 역사고고학으로 나누어지며, 고고학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고학 외에 문헌사학(역사학), 인류학, 미술사, 공예사, 금석학 등 다양한 보조학문을 활용, 학습하고 있으며, 고고학은 그 특성상, 실내에서의 연구 외에, 유적의 발굴 조사 등 지속적인 야외 합동연구조사가 있어야 하는 학문이므로, 이를 통하여 고도의 협동심과 사회생활의 자질은 물론 고고학자료 - 유물·유적 - 을 직접 다루므로, 사물에 대한 뛰어난 관찰력과 분석력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고고학이란 결국 인간 그 자체를 탐구, 이해하는데 가장 유용한 인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 고고학과는 김해, 창원, 울산, 함안, 고령, 경주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과 출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으로는 국립박물관·시립박물관·문화재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현님이 하고 싶어하는 분야와 아주 유사한 일들을 고고학과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고고학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구태훈교수님의 동영상 인터뷰](#)와 전문직업인 [문화재보존가](#)에 대한 정보를 링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는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멀티미디어인 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강조하는 학문이 바로 융합 학문이죠. 고고학과에 진학한 후 부전공으로 화학과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교양과목으로 화학과 관련된 교과를 이수하는 것도 효율적이겠죠. 고고학과에서도 성분을 분석하던지 연대를 측정하는 기술 등은 화학과 관련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울러부산대학교 고고학과는 인문계열입니다. 부산대학교 인문계열의 학생 선발 방법은 수시 모집은 수능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영어), 사회/과학탐구를 응시하고, 이 중 우수한 2개 영역 이상이 합 8등급 이내인데 이 조건을 보면 자연계열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전국의 대학 중에서 고고학과가 개설된 대학 목록입니다. 참고하세요.

지역	대학명	학과명
서울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부산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부산	부산대	고고학과
대전	충남대	고고학과
대구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충북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충남	고려대(세종)	고고미술사학과
전북	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
전북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경북	동국대(경주)	고고미술사학전공
경남	인제대	역사고고학과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본인의 실력이 50% 정도이며 둘째는 자신의 의지가 30%, 그리고 전략수립이 20% 정도를 차지 한다고 합니다.

소현님~!! 굳은 의지로 무장 한 후 차근차근 실력을 갖춘 다음 지원 전략을 잘 수립하면 꼭 자신이 꿈꾸는 일을 이루어 낼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파이팅.



【 6반 - 사례 2 】

성 명	조 진 형	소속 학교명	충남연무중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일반적인 상담사례로 답변의 패턴을 배우고자 함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이런 유형의 답변 사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진로를 바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좋아해서 책과 관련된 쪽으로 진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있는 직업이 사서입니다. 딱 제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서를 채용하는데가 많지 않아서 취직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다가 문정과를 나오면 사서 말고는 할게 없네요.

사서만큼 저랑 잘 맞는 직업은 없는것 같지만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원하는 직업의 전망이 어두워서 진로를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미래 직업의 전망이 어두워서 고민이군요....!

안녕하세요, asdrti님!

우리 커리어넷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적성과 관심이 있는 장래 직업으로 사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취업이 안될 것 같고 사서라는 직

업의 전망이 어두운 것 같아 고민하고 있군요. 원하는 직업의 전망이 어두우니 진로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학시절에 asdrti님처럼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고 원하는 직업까지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가 쉽지 않은데 asdrti님은 참으로 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깊이 생각한 현명한 사람이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성과 흥미가 맞는 직업의 전망이 다소 어두운 것으로 보이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사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각 기관의 도서관과 자료실에서 도서 및 자료를 배치, 보관하며 이용자가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이죠. 언어능력 및 대인관계능력이 주로 요구되고 쾌활하고 밝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 유리하며 서비스 정신이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구요. 취업은 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기업체 정보자료실등에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준비방법으로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를 졸업하면 유리합니다. 또는 일부대학교 사서교육원에서 1년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asdrti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도서관이 지역내에서 열람, 대출외에도 기능이 다양해져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서관이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자료검색과 열람이 용이해져서 최소의 사서인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서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 때문에 고민이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국도서관협회, 국회도서관등을 방문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asdrti님!

asdrti님의 고민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베레스트는 누구나 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등정하여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asdrti님의 고민이 크고 절실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아주 넘기 어려운 자신만의 에베레스트로 생각한답니다. 원하는 일, 하고자하는 꿈은 이런 노력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운거죠. 만일 사서라는 꿈을 놓고 다른 직업을 찾아 갔을 때 사서에 대한 미련, 아쉬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asdrti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를 나왔을 때 꼭 할 수 있는 직업이 사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관련 직업을 찾아서 적성과 취미를 살리며 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지도사, 기록물관리사, 서지학자, 독서치료사등의 직업이 있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권하고 싶네요.

그렇다고 현실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겠죠?

asdrti님이 원하는 "사서"의 꿈을 위해서도 아니면 진로를 바꾸었을 때의 그 어떤 꿈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공통적인 꼭 해야할 일은 현재의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일단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면 천천히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방법은 어떨까요? 꿈은 변하기도 하고 또 더욱 더 큰 바위처럼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멋지게, 분명하게 한번 날아보세요!

기대합니다.

커리어넷 드림

【 6반 - 사례 4 】

성 명	최 은 주	소속 학교명	가좌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생소한 고민이라 상담하기가 어려웠음
- 답변내용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능력이 안 되는데 꿈을 꾸는 경우 , 특히 예체능계 쪽의 상담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함.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저의 꿈 가수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는 대전 평범한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는 1학년 권OO입니다

저의 꿈은 가수입니다 근데 문제가있습니다

옛날부터 노래를접해왔지만 16살때 노래를처음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음치였구요 그걸고치기위해 노래녹음하면서 부르다가

노래가 점점 좋아지고 듣는것도좋고 부르는것도좋고

결국 가수를 고등학교1학년 3월달에 진로를 정했습니다

헌데 문제는 제 실력이 너무나도 떨어진다는겁니다

저는 가끔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저에게 노래부르지마라 못부르네 이런 식으로 말해줍니다

가수는 하고싶은데 노래는못합니다.. 그렇다고 성적이높아서 다른 직업을 택할수있는것도아닙니다 성적도 밑바닥입니다 저는 가수의꿈을 계속유지해야할까요 집안사정도 힘들어서 배울기 회조차 만들기 힘듭니다

가수는 정말 하고싶은데 현실이 너무 와닿습니다 음대대학교 등록금도 비싸고 경쟁률도 심하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부딪쳐보세요.

안녕하세요? 인환님!!!

가수가 하고 싶은데 노래실력도 안되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 고민이시군요?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가지 장벽이 있어서 헤쳐나가기 어려워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진로에 대해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인환님이 꼭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낼거라 믿습니다.

슈퍼스타K 에서 우승한 허각씨나 가수 비(정지훈)처럼 가난을 이겨내고 가수가 된 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은 가수가 되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음대를 가서 여러가지를 배우고 가수가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구요.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끼와 재능을 갖추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친구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각 기획사별로 상시오디션과 E-mail 등을 통한 온라인오디션 기회도 있고요, 자신의 노래를 파일로 보내서 평가를 받아볼 수도 있으니 이러한 오디션을 활용해서 가수로서의 인환님의 재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친구들의 의견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셈이므로 보컬트레이닝을 받는 등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오디션에서 모두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인환님도 다른 시각에서 여러가지 직업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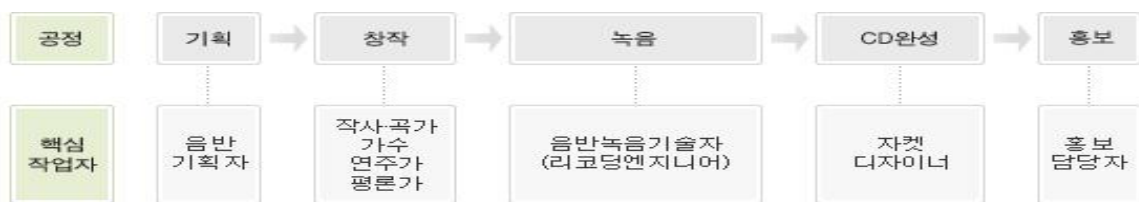
[SM의 오디션 정보 바로가기](#)

[JYP의 오디션 정보 바로가기](#)

[YG의 오디션정보 바로가기](#)

[예당컴퍼니의 오디션 정보 바로가기](#)

<음반작업과정 관련 직업들>



[음반분야 주요직업 탐색해보기](#)

요즘은 산업이 발달되면서 예전에는 한 사람이 했던 일을 여러 전문가가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표에서 제시되었듯이 가수가 음반 1장을 내더라도 작사가, 작곡가, 연주가, 가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음반기획자, 녹음기술자, 음반자켓디자이너, 음반홍보가 등 음반 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나누어서 작업을 하여 1장의 음반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노래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음악관련 직업이 많으니 인환님이 음악관련 다른 직업에도 관심을 갖고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랄게요.

커리어넷 드림.



【 6반 - 사례 5 】

성 명	현 유 영	소속 학교명	도당고
-----	-------	--------	-----

1. 사례 선정 이유

- 처음 이 사례를 접했을 때 막막했었기 때문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많은 사례들이 아무 말도 없이 난 이런 직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든지 난 이런 저런 직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내게 더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선정했음.
- 이야기 하다보니 답변이 길어졌는데 길이는 얼마나 해야할 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제가 원하는 직업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고민되요

제가 지금 원하는 직업은 첫번째로 동물사육사입니다. 두번째는 제빵제과요리사입니다. 이 둘중에 둘다하고싶고 솔직히 말하면시인도하고싶고 해보고싶은것이 많습니다. 일단 제일먼저 동물사육사는 일단 생명과학쪽으로 나가면된다는데 제가여기서 이쪽으로나갈려면 생명과학쪽으로 공부를 해야하나요? 그런데자격증도필요하다던데 자격증은 어떻게따야하나요? 자격증을따려면 어디서 어떤공부를해야하나요? 그리고 필요한것이무엇일까요, 또 두번째는 제빵제과요리사입니다. 이쪽으로 나갈려면 제과제빵쪽으로 나가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나갈려면 어떤공부를 해야하며 필요한것이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의특성에대해 더 알고싶습니다.무엇이더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또 이직업이나에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신중한 진로결정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지연님^^

커리어넷입니다.

기말고사 끝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고 곧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1학기의 피로를 풀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은 헤이하고 놀고도 싶을텐데... 이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위해 상담실 문을 노크해 주는 지연님은 정말 기특하며 덩달아 저도 상담을 더 잘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늘 방학 내내 쉬지는 못하지만 방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지연님은 올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이미 멋진 방학 플랜을 짰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구요? 이렇게 방학이 되자마자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계획하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진로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도 항상 우선권에서 밀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지연님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지연님^^ 지연님은 하고 싶은 일을 두 가지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동물사육사가 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제과제빵사가 되는 거예요. 동물사육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하고 동물을 무지 사랑하는 분인가 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연님이 제공해 주는 정보로 두 직업 중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지 답해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답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진로를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루 중 우리가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일은 나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또 나의 성격과도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동물이 예쁘다는 이유로 제과 제빵사가 멋있게 보인다는 이유로(물론 지연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선택을 한다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진로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진로를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탐색을 한 후 관심가는 직업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나서,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어려운 점들을 파악한 후에도 정말 내가 그 일을 하면 잘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선택을 해도 조금도 늦지 않기에 오늘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괜찮겠죠?

자 그럼 우리 함께 지연님의 자기이해 및 자아 탐색을 위해 함께 여행해 볼까요?

지연님은 자신이 무엇을 잘 하고 좋아하는 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진로를 결정 할 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뭘 하고 싶은지, 나에게 이런 적성이 있고 이런 면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나의 적성과 흥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로란 앞으로의 인생계획과 관계된 것인데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어느 곳으로 방향



을 정해야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진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분야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도와 줄 수 있는 커리어넷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받아 보는 것도 자신이 어떤 것에 적성과 흥미가 있는지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때 나온 자료들은 참고 사항이지 꼭 그런 직업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우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지연님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흥미와 적성이 있기에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 후 지연님이 하고자 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직업을 탐색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직업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직업, 학교공부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난 이것을 할 때 제일 신났었다, 평소에 친구들과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재미있었다, 예전에 이걸 잘해서 칭찬 받은 적이 있었지... 등등의 사소한 것일지라도 관심 갖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또한 관심분야 목록표라도 만들어서 작은 관심거리라도 놓치지 말고 기록해 본다면 지연님이 어느 분야에 더 흥미와 적성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지연님을 행복하게 해 줄지 알 수 있을거예요.

이번에는 지연님이 궁금해 하는 직업으로 가 볼까요?

첫째: 지연님은 동물사육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일단 동물을 사육이라는 관점을 떠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동물사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픈 동물을 치료해 주거나 키우든지 아니면 동물원과 같은 곳에서 동물을 교육 시키고 훈련 시키고 싶은 건지, 또는 동물을 예쁘게 키우고 싶은 건지 이런 고민에 따라 목표와 준비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이유는 선택에 따라 배워야 할 학문이 달라지거든요. 수의, 축산, 애견 등 그러므로 무엇을 할 건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동물사육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사육하고 관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겉으로 보이는 일과 실제로 그 일을 직업으로 가졌을 때 하는 일은 무척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동물 사육사는 도심이나 빌딩 속에서 일하는 사람과는 달리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이 큰 매력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서울 수도 있지만 야생동물들은 순

하고 착해서 함께 지낸다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매력이자 보람일 수 있지요.

학업은 전문대 이상의 동물관련학과를 졸업하면 되며 동물원 사육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인공수정사, 애완견, 조련 관련 자격증, 관리자 등의 자격증을 갖추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현장에서 순발력 있게 또는 재치 있게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사육 일을 하다보면 여자 분들에게 잘 맞는 분야와 남자 분들에게도 잘 맞는 분야가 따로 있으며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구력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사육사는 동물만 관리하는 사람으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맡고 있는 동물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인이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행정적인 능력 또한 필요로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동물관련 학과에 전공을 하고 있고, 현재 사육사의 꿈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한민국 주요 동물원, 수족관을 합쳐도 18곳으로 상당히 적은 수이기 때문에 사육사를 필요로 하는 인력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문화수준과 경제력이 더 높아진다면 지금 전공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지연님은 제과 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제과제빵사는 손 재능, 대인관계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예민한 미각과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미적 감각이 필요하며 새로운 빵, 과자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교한 손놀림, 꼼꼼함을 갖추면 유리하며, 장시간 서서 작업하기 때문에 체력과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예술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혁신, 사회성, 리더십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직업이지요.

관련학과로는 제과제빵과, 식품영양과, 식품영양학과, 호텔조리과, 식품가공과, 식품과학과, 식품조리과, 조리과학과 등이 있으며 관련자격으로 제과기능사, 제과기능장, 제빵기능사가 있습니다.

커리어넷 / 직업사전 / 동물사육사 / 제과 제빵사 에서 더 많은 정보와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여 보세요.

지연님^^ 위에서 제시한 과정들을 통해 특히 지연님과 잘 맞는 분야를 찾고 나서 명확한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연님이 해야 할 것들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서 목표를 세워보



세요. 예를 들어서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준비(대학을 간다면 무슨 과를 가는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대를 갈 것인지 등)를 해야 하는지, 현재 내가 부족한 점은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잘 알아보고 차근차근 준비해보고, 그 직업을 가졌을 때의 10년 후 내 미래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 미래일기를 써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요.

이런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의 시간을 들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대학진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될 테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명확한 목표를 갖고 지연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연님! 올 여름방학은 진로여행을 하는 시기로 플랜을 세우면 어떨까요? 그 어느 방학보다 훨씬 더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멋진 비전여행 후 아름다운 꿈을 가진 멋진 모습으로 한 번 더 커리어넷 문을 살포시 노크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환영입니다.

지연님의 멋진 비전여행을 위하여 파이팅예요!!!

커리어넷 드림

【 6반 - 사례 6 】

성 명	홍 순 도	소속 학교명	서산여자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다 회기 진행되면서 만족한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움
- 외국에서 상담신청을 한 경우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상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진로와 다른 정보 요구)?
- 사설업체에서 제공되는 정보제공의 확실성 확인 문제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딱 한번만 더...ㅠ

안녕하세요 커리어넷 상담 선생님... 죄송합니다 요번에도 드리 반가운 소식을 듣고 찾아뵙지 못하네요.

아직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한국에 가고 싶다고 대학 알아봐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옵션은 많지만 지금 필리핀서 졸업하고 당장은 법적으로도 허락이 안된다고...

제가 이제 조금은 정보를 알고 부모님을 잘 설득할수 있겠거니 저의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교육을 받겠다구요...

정말 싫어하십니다. 제가 간접적으 사알짜 떠 보았는데 딱 알아보시더니 한국으로 공부하러 올 생각은 꿈에도 말라며 차라리 외국 미국이나 캐나다를 알아 보라십니다.

2년 전에 제가 부모님께 엄청 부탁했었거든요 여기 더 이상 못있겠다고 다른 나라 보내달라고... 그땐 제정도 충분하지 못했고 부모님은 제가 우울증 비슷한 증세 그러니까 향수병이 심하게 온것 같다며 잘 타일러 주시고 그렇게 끝이난 적이 있어요.



한국으로 대학을 갈수없다면 다른 나라라도 한번 알아라도 보고싶은데... 이곳은 우리의 적성과 직업을 상담해 주는 곳이지 유학원이 아닌데 염치 없게도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선생님 제 상황에 갈수있는 외국 (영어권)나라 어디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마케팅(제가 따라 그리거나 만들기 손에 재주가 쯤 있는거 같아요 아이디어 내서 회의도 하고 광고 디자인과 미디어 막 그런거 관련된 직업) 관심있고 키가 커지면 스투어디스도 꿈을 버리지 않았고 상담사도 되고 싶네요.

이곳이 유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질문을 드린 것 압니다. 혹시나 해서 여쭙 본것이니 부담 갖지는 말아주세요. 질문에 답을 못해 주셔도 이해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용기를 내세요^^

***님, 안녕하세요? 커리어넷입니다.

***님, 상담신청하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대학진학도 생각대로 되지 않고 부모님의 뜻과도 다르니 여러 가지로 무척 상심하고 있군요. 그래서 부모님이 권유한 것처럼 미국이나 캐나다 등 영어권으로 다시 공부하러 가고 싶은 것이지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어요. 용기를 내세요.

필리핀의 학제와 다른 영어권 학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교육제도와 대학입학제도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야 하지요. 미국의 대학은 입학시험을 별도로 치루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학자격을 상세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님의 현재 성적이나 영어실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군요.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나 아일랜드 등의 영어권으로 유학을 가는 제반 문제는 한국유학협회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네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대학을 거쳐서 종합대학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있고, 기술교육을 하는 전문대학도 있습니다. ***님이 관심있는 마케팅이나 스투어디스를 직업으로 갖기에 적합한 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물색하는 것이 좋겠네요.

다른 영어권으로 유학할 경우 경제적인 부분과 진학 가능한 대학 및 학과 그리고 장래의 진로 계획을 수립한 후에 부모님과 상의해 보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님이 승낙하면 유학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들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님을 필리핀에 유학보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바래요. 2년 전의 ***님보다 지금의 모습은 다르지요. 홀로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성장한 것을 스스로 믿어보세요.

조급함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나이로 보아도 대학에 가는 시기가 이른 편이지요. 그러나 다른 국가로 유학할 경우에 입학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실에 오세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요. ***님~~ 화이팅!

커리어넷 드림.



【 6반 - 사례 7 】

성 명	황 의 철	소속 학교명	향일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학생 수준에 맞는 상담 및 자료 제공의 어려움
- 질문에서 직접적인 직업명이 없어서 정보 탐색의 어려움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학생별, 학교급별 상담내용의 수준
- 막연한 생각에 대한 상담과 메스컴의 영향에 의한 질문에 대한 답변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관심있는 분야는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에요ㅠㅠ

최근 식량난과 일부 종자회사의 특허권 독점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듣고 종자 개발과 관련된 진로로 가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농부라고 할수도 없고, 생명공학연구원이라고 하기엔 정확히 그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분류표를 보고도 모르겠네요ㅠㅠ

제가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학과나,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종자기술사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인선님.

커리어넷입니다.

종자 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상하고 선진국에서는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종묘회사들이 대부분 다국적기업에 흡수되어 토종종자의 유출이 심각하며, 비싼 로열티를 주고 종자를 사와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해요. 인선님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인선님,

관련 직업명 및 진출분야를 알아보면, 종자 개발과 관련된 직업을 종자기술사라고 해요. 종자 산업법에 의하여 종묘업에 종사할 기술인력으로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생산업체, 국립종자원, 원예재배농장, 자영농, 종묘상, 농촌진흥청 등의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워크넷 직업정보시스템 (키워드 검색 : 종자, 종묘, 씨앗)참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종자기술사가 되기 위한 관련학과로는

1. 실업계고등학교의 농업과, 원예과, 시설원예과, 도시원예과, 생활원예과
2. 전문대 이상의 농학과, 식량자원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과학과, 생명자원학과, 식물응용과학부, 생명자원과학부, 자원생물환경학부, 시설원예과, 원예과, 원예자원과, 관상원예과
3. 대학 이상의 농업학과, 농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과학과, 식량자원학과, 생명 자원학과, 식물응용과학부, 자원생물환경학부, 생명자원과학부, 원예학과, 관상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육종학과, 식량원예과학과 등이 있어요.

관련자격증으로는 종자기술사를 비롯하여 종자기능사,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 임업종묘기사 등이 있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시험을 합격하면 됩니다.

시험에 관련된 정보는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정보▷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농업을 차례대로 클릭하고, 종자기능사, 종자기술사,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 등을 선택하여 보면 알 수 있어요.

참고가 될 만한 인터넷 자료에는 토종종자파수꾼,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국립종자원,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생명공학육종연구소) 등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윤인선님의 궁금한 점이 해결되고, 진로의 선택이 꼭 이루어졌으면 해요. 더욱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커리어넷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넷 드림



【 6반 - 사례 8 】

성 명	문 영 주	소속 학교명	전주술내고등학교
-----	-------	--------	----------

1. 사례 선정 이유

- 만족도 상담의견 평점에 대응 자세
- 2회기의 내담자 상담

2. 본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

- 상담을 진행할수록 상담역량 강화할 수 있는 역량 연수 필요

3. 상담 사례

[내담자의 상담내용]

제목 :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두개있는데, 경영분야(전문직)에서 걸립니다.

경영분야(전문직)은 대체로 무엇이며

그중에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도 있나요?

경영분야(전문직)은 문과로 들어가야 될 수 있는건가요?

[상담자의 답변내용]

제목 :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의 차이에 대해

안녕하세요? ○○○님! 커리어넷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이네요. 1회기에 ○○○님은 본인의 진로에 대해 매우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다시 상담을 요청한 점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님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 두 가지가 경영분야에 걸림돌이라며, 경영분야(전문직)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경영학과와 경제학과에 대해 궁금한 것 같군요.

경영분야(전문직)에 대해 답변을 드리지요. ○○○님이 질문한 경영분야(전문직)은 커리어넷 직업 분류별 체계에 해당해요. 커리어넷 직업 분류별 체계에서는 각 직업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유사성과 수준에 따라 16가지로 구분하는데 수준에 따라 전문직과 숙련직으로 구분하며, 커리어넷 직업흥미검사 결과가 이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죠. 특히 경영분야(전문직)은 사업체나 정부기관에서 조직의 인력과 자산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재무, 회계, 관리, 경영촉진 활동 등이 포함되고, 경영분야(숙련직)은 판매, 판촉, 마케팅을 포함하여 영업촉진과 관련된 재정 및 조직 활동이 포함되네요.

학과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커리어넷 학과 사전([경영학과](#), [경제학과](#))에서 검색이 용이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아울러 학과 정보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해당 학과가 속해 있는 학교의 입시 정보를 찾아보면, 자신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선택 과목 등을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지요.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의 차이를 살펴 보죠. 경제학과는 이론과 응용성을 조화시킨 경제학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해요. 이에 따라 지도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갖추고 사회의 제반 경제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과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 경제인 양성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어요. 경영학과에서는 경영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을 포괄적으로 교육함과 동시에 기업의 중요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네요. 또한 기업을 주축으로 한 모든 경영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의 원리와 관리기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래의 전문경영자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지요.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의 공통점으로는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보험계리사 등 관련된 자격으로 감정평가사, 경영컨설턴트, 회계사, 관세사, 국제회의전문가, 바이어(구매인), 부동산중개인, 세무사, 외환딜러, 기업고위임원, 증권중개인, 금융자산운용가(펀드매니저),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 인문사회계열교수, 금융자산관리사(FP), 기업분석가, 머천다이저(MD), 재정 및 신용분석가, 노무사, 국제무역사무원, 보험계리인, 선물중개인 등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죠.

경영 및 경제학과와 관련해서는 이과보다 문과를 선택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에 있어 이과에서 교차 지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에서 진학상담을 받으면 효과적이죠.

○○○님의 질문에 만족한 답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항상 개방되어 있으니 요청하면 즉시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커리어넷 드림